



Program

14:00~14:30	등 록	
14:30~14:40	개 회 식 인사말씀	이원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14:40~15:40	좌 장 발표 1 발제 2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 베이비 부모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욕구 및 대응전략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베이비 부모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 권중돈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40~16:00	휴 식	
16:00~16:40	토 론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경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회장) 조동기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미래학자) (가나다 순)
16:40~17:00	중 합 토 론 및 폐 회	



Contents

발 표

- 베이비 부모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욕구 및 대응전략
-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3
- 베이비 부모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
- 권중돈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3

토 론

-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79
- 이호경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회장)----- 85
- 조동기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89
-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미래학자)----- 95

발표문

- 이금룡(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권중돈(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베이비 부모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욕구 및 대응전략

발표문 1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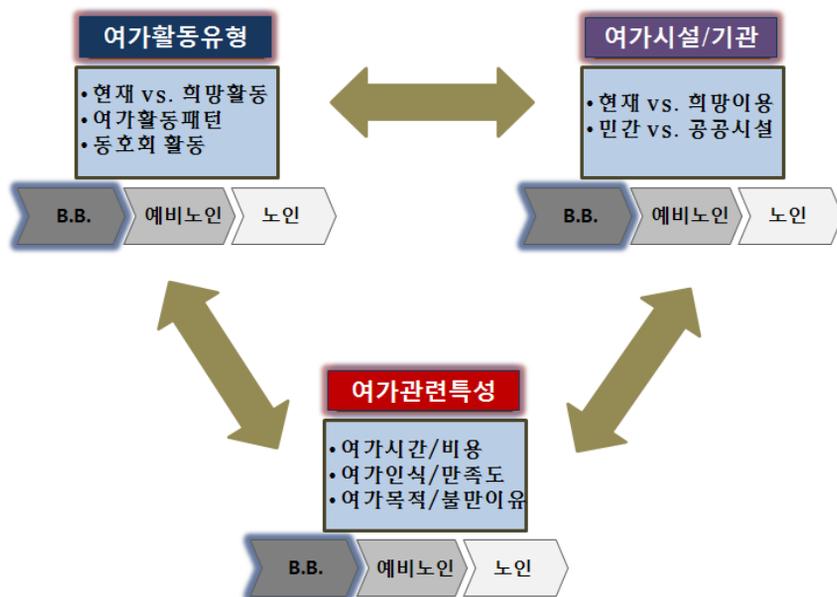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 부모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베이비 부모들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제반 특성과 여가활동 유형, 그리고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그림 1참고).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베이비 부모의 특성으로 여가시간과 비용, 여가인식과 만족도, 그리고 여가의 목적 및 불만족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에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여가활동 항목들과 여가활동 유형 구분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희망여가활동을 비교 고찰하였고, 여가활동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현재 여가활동 유형을 토대로 동질형, 중복형, 혼합형의 여가활동패턴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동호회 활동여부 및 목적, 동호회의 소속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시설 및 기관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여가시설과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 여가시설을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가시설을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시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향후 이들이 예비노인과

노인세대로 이어지는 시간적 변화궤적에 의한 여가 제반 특성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비노인세대(56세-64세)와 노인세대(65세 이상)를 함께 비교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도

I.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여가관련 특성

1. 베이비 부머 세대와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1〉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베이비부머세대 (1963-1955)	예비노인세대 (1954-1947)	노인세대 (1946년 이전)	Total N(%)	x 2	
성별	남자	260(49.5)	166(47.4)	267(42.1)	6.76*	
	여자	265(50.5)	184(52.6)	367(57.9)		816(54.1)
혼인상태	미혼	13(2.5)	5(1.4)	1(0.2)	243.21***	
	배우자 있음	439(83.6)	282(80.6)	376(59.3)		1,097(72.7)
	사별	24(4.6)	46(13.1)	245(38.6)		315(20.9)
	이혼	49(9.3)	17(4.9)	12(1.9)		78(5.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7(31.8)	220(62.9)	516(81.4)	296.44***	
	고졸	209(39.8)	82(23.4)	70(11.0)		361(23.9)
	대졸 이상	149(28.4)	48(13.7)	48(7.6)		245(16.2)
소득수준	하	160(30.5)	158(45.1)	484(76.3)	290.60***	
	중	256(48.8)	165(47.1)	135(21.3)		556(36.8)
	상	109(20.8)	27(7.7)	15(2.4)		151(10.0)
Total	525(100.0)	350(100.0)	634(100.0)	1,509(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결과

*P<.05, **P<.01, ***P<.001

본 연구의 베이비 부머 조사자들은 총 525명이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84% 가까이가 현재 배우자가 있었고, 교육수준은 고졸(39.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졸 이하(31.8%)와 대졸 이상(28.4%)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에서는 중류층(월가구 평균소득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응답자들이 48.8%로 가장 많았게 조사되었다. 예비노인들의 경우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차이점으로는 교육수준에서 중졸 이하가 6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노인세대는 여성의 비율이 57.9%로 남성에 비해 15%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사별 비율도 38.6%로 높았고,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이 81.4%,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로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가 76.3%로 다른 두 세대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여가특성 및 욕구

베이비 부머들의 여가의 특성 및 욕구를 하루 평균여가시간(평일 vs 휴일), 희망여가시간(평일 vs 휴일),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그리고 여가의 목적과 여가불만족 이유 등으로 살펴보면서 더불어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세대의 제반 특성들과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2〉는 세대별 하루 평균여가시간 및 희망여가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 부머들은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으로 3.68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휴일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하루 평균 6.56시간을 여가로 보내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희망 여가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표 2〉 세대별 하루 평균여가시간, 희망 여가시간

구 분	구분	베이비부머 세대(a)	예비노인 세대(b)	노인세대 (c)	F값	Duncan Test
		여가시간	하루평균 평일	3.58	4.20	6.19
	여가시간 휴일	6.56	6.18	7.34	17.99***	ba/c
	희망여가 평일	4.93	5.32	6.48	67.23***	a/b/c
	시간 휴일	8.17	7.68	7.95	3.24*	bc/ca

〈표 3〉 성별, 베이비부머 구분에 따른 평균여가시간, 희망 여가시간

	구분	하루 평균 여가시간(시간)				희망 여가시간(시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M	t값	M	t값	M	t값	M	t값
성별	남자	3.37	-2.29*	6.76	1.45	4.65	-3.52***	8.33	1.31
	여자	3.78		6.37		5.21		8.01	
베이비부머	전기	3.78	-2.21*	6.55	0.10	5.08	-1.84	7.91	2.05*
	후기	3.39		6.58		4.79		8.4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평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지만, 휴일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여가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희망여가시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평일에는 더 많은 여가시간을 원하는 반면에, 휴일에는 남성이 더 많은 여가시간을 원하고 있었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전기베이비부머가 후기베이비부머보다 평일의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희망여가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평일보다 휴일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여가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에는 현재보다는 약 1시간 21분 정도(남성:1.28시간, 여성:1.48시간)의 여가시간을 더 원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현재보다 약 1시간 37분 정도(남성:1.57시간, 여성:1.64시간)를 더 희망하고 있었다.

〈표 4〉 베이비 부머 세대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여가시간, 희망 여가시간

		중졸이하 (a)	고졸 (b)	대졸이상 (c)	F값	Duncan Test
평균 여가시간	평일	3.82	3.52	3.39	1.88	abc
	휴일	6.35	6.31	7.16	4.04*	ba/c
희망 여가시간	평일	5.26	4.81	4.72	4.00*	cb/a
	휴일	7.81	8.05	8.72	4.60**	ab/c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짧은 것을 조사되었다. 평일 여가시간은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휴일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보다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여가시간도 현재여가시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 베이비 부머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여가시간, 희망 여가시간

		하 (a)	중 (b)	상 (c)	F값	Duncan Test
평균 여가시간	평일	4.19	3.28	3.38	10.79***	bc/a
	휴일	6.65	6.33	6.98	1.84	bac
희망 여가시간	평일	5.27	4.78	4.78	3.92*	cb/a
	휴일	7.89	8.18	8.52	1.67	abc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가 ‘중’ 혹은 ‘상’ 보다 평일에는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휴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상’인 경우 ‘하’나 ‘중’ 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로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즉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일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반면에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 베이비부머 구분에 따른 여가 시간에 대한 생각*

		N	M	t값
전체		525	3.41	
성별	남자	260	3.43	0.49
	여자	265	3.39	
베이비부머	전기	254	3.33	1.88
	후기	271	3.4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 5점 척도(5 매우 충분하지 않음→1 매우 충분함)

여성이 남성보다 평일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고,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여가시간이 남성들보다 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하지만, 5점 척도에서 평균 3.33의 값은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 시간에 대한 생각

	하 (a)	중 (b)	상 (c)	F값	Duncan Test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	3,28	3,51	3,36	2,95	ac/cb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 5점 척도(5 매우 충분하지 않음→1 매우 충분함)
 *P<.05, **P<.01, ***P<.001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교육수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수준이 '중'인 응답자(평균 3.51)가 소득수준 '상'인 응답자들(평균 3.36)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성별 및 베이비부머 연령대에 의한 월 평균 여가비용, 희망 여가비용

		월 평균 여가비용(천원)	월 평균 희망 여가비용(천원)
전체		175.74	281.09
성별	남자	222.27	335.90
	여자	130.08	227.30
베이비부머	전기	177.17	272.13
	후기	174.39	289.4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남성(약 22만 2천원)이 여성(약 13만원)보다 월 평균 여가비용이 약 9만2천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남성들은 희망여가비용이 약 33만 6천원으로 약 11만 3천원을 여가비용으로 더 쓰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희망여가비용이 약 22만7천원으로 약 9만 7천원을 추가적으로 더 소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기와 후기 베이비부머들은 월 평균 여가비용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희망여가비용에서는 후기 베이비부머들이 전기베이비부머 보다 약 1만 7천원 더 소비하기를 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가비용에 대해서는 5점 척도(5: 매우 부족함, 1: 매우 충분함)에서 평균 3.69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베이비 부머 세대의 소득수준에 의한 월 평균 여가비용, 희망 여가비용

		월 평균 여가비용(천원)	월 평균 희망 여가비용(천원)
전체		175.74	281.09
소득수준	상(a)	278.2	365.96
	중(b)	171.86	290.17
	하(c)	112.14	208.73
F값		22.96***	16.28***
Duncan test		a/b/c	a/b/c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 P<.001

소득수준 '상'의 경우 월평균 여가비용이 약 27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11만2천 원보다 약 15만원을 여가비용으로 더 소비하고 있었다. 희망여가비용에서도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비용보다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더 소비하고 싶어 하며, 소득수준간의 희망 여가비용 차이는 현재의 여가비용 차이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중류층'에서 좀 더 많은 여가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여가활동 목적

		건강	즐거움	마음안정 휴식	대인 관계	스트레스 해소	자기 계발	자기 만족	시간 보냄	기타
전체		94(17.9)	105(20.0)	112(21.3)	50(9.5)	110(21.0)	6(1.1)	30(5.7)	16(3.0)	2(0.4)
성별	남자	43(16.5)	42(16.2)	<i>54(20.8)</i>	36(13.8)	59(22.7)	2(0.8)	11(4.2)	12(4.6)	1(0.4)
	여자	51(19.2)	63(23.8)	<i>58(21.9)</i>	14(5.3)	51(19.2)	4(1.5)	19(7.2)	4(1.5)	1(0.4)
베이비부머	전기 B,B	44(17.3)	<i>49(19.3)</i>	49(19.3)	22(8.7)	57(22.4)	5(2.0)	16(6.3)	11(4.3)	1(0.4)
	후기 B,B	50(18.5)	<i>56(20.7)</i>	63(23.2)	28(10.3)	53(19.6)	1(0.4)	14(5.2)	5(1.8)	1(0.4)

		건강	즐거움	마음안정 휴식	대인 관계	스트레스 해소	자기 계발	자기 만족	시간 보냄	기타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24(14.4)	39(23.4)	35(21.0)	12(7.2)	<i>36(21.6)</i>	2(1.2)	7(4.2)	11(6.6)	1(0.6)
	고졸	38(18.2)	<i>44(21.1)</i>	41(19.6)	21(10.0)	48(23.0)	2(1.0)	10(4.8)	4(1.9)	1(0.5)
	대졸이상	<i>32(21.5)</i>	22(14.8)	36(24.2)	17(11.4)	26(17.4)	2(1.3)	13(8.7)	1(0.7)	0(0.0)
소 득 수 준	하	26(16.3)	<i>34(21.3)</i>	29(18.1)	9(5.6)	42(26.3)	0(0.0)	9(5.6)	11(6.9)	0(0.0)
	중	46(18.0)	<i>52(20.3)</i>	60(23.4)	26(10.2)	50(19.5)	5(2.0)	10(3.9)	5(2.0)	2(0.8)
	상	22(20.2)	19(17.4)	<i>23(21.1)</i>	15(13.8)	18(16.5)	1(0.9)	11(10.1)	0(0.0)	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여가활동의 목적으로는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3%), 스트레스 해소(21.0%), 즐거움(20.0%), 건강(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인관계, 자기계발, 자기만족, 시간보내기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이 주로 스트레스 해소(22.7%)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20.8%)에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여성들은 즐거움(23.8%),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9%), 건강(19.2%), 스트레스 해소(19.2%) 등 비교적 다양한 목적들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은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여가보다는 즐거움이나 건강 추구 등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활동의 목적을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마음의 안정 및 휴식,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예비노인 세대들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마음의 안정 및 휴식(21.4%), 즐거움(19.7%) 등으로 나타났다(표 9 참고). 베이비붐 세대에서 두드러졌던 스트레스 해소는 14.0%에 불과하였다. 한편, 노인세대는 건강(32.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보내기가 20.2%, 즐거움이 18.8%로 나타났다.

〈표 11〉 세대별 여가활동목적 (단위: 명, %)

구분	베이비부머 세대	예비노인 세대	노인세대	Total
여가목적				
건강	94(17.9)	94(26.9)	205(32.3)	393(26.0)
즐거움	105(20.0)	69(19.7)	119(18.8)	293(19.4)
마음안정 및 휴식	112(21.3)	75(21.4)	93(14.7)	280(18.6)
대인관계	50(9.5)	19(5.4)	40(6.3)	109(7.2)
스트레스 해소	110(21.0)	49(14.0)	26(4.1)	185(12.3)
자기계발	6(1.1)	8(2.3)	4(0.6)	18(1.2)
자기만족	30(5.7)	8(2.3)	18(2.8)	56(3.7)
시간 보내기	16(3.0)	28(8.0)	128(20.2)	172(11.4)
기타	2(0.4)	0(0.0)	1(0.2)	3(0.2)
Total	525(100.0)	350(100.0)	634(100.0)	1,509(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이와 같이 여가활동의 목적은 세대별로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일과 관련된 여가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퇴직 전으로 일 중심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가는 스트레스 해소나 휴식 등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나 노인세대는 즐거움이나 건강을 위한 여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은 것 같다. 특히 노인세대의 경우는 경제활동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현실에서 여가를 시간보내기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12〉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정보 프로그램 부족	여가 시설 부족	여가 동반자 부재	자기설계 부족	기타
전체		92(41.6)	119(53.8)	0(0.0)	1(0.5)	5(2.3)	1(0.5)	3(1.4)
성별	남자	41(37.3)	65(59.1)	0(0.0)	0(0.0)	2(1.8)	0(0.0)	2(1.8)
	여자	51(45.9)	54(48.6)	0(0.0)	1(0.9)	3(2.7)	1(0.9)	1(0.9)
베이비부머		전기 B.B	33(32.0)	62(60.2)	0(0.0)	0(0.0)	4(3.9)	1(1.0)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정보 프로그램 부족	여가 시설 부족	여가 동반자 부재	자기설계 부족	기타
	후기 B.B	59(50.0)	57(48.3)	0(0.0)	1(0.8)	1(0.8)	0(0.0)	0(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26(35.1)	44(59.5)	0(0.0)	0(0.0)	2(2.7)	0(0.0)	2(2.7)
	고졸	39(40.2)	53(54.6)	0(0.0)	1(1.0)	3(3.1)	0(0.0)	1(1.0)
	대졸이상	27(54.0)	22(44.0)	0(0.0)	0(0.0)	0(0.0)	1(2.0)	0(0.0)
소득 수준	하	22(26.5)	57(68.7)	0(0.0)	0(0.0)	3(3.6)	0(0.0)	1(1.2)
	중	45(43.7)	55(53.4)	0(0.0)	0(0.0)	2(1.9)	0(0.0)	1(1.0)
	상	25(71.4)	7(20.0)	0(0.0)	1(0.5)	0(0.0)	1(2.9)	1(2.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4(5점 척도;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로 다소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불만족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3.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부족(41.6%)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불만족 이유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기베이비부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6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후기 베이비부머에게는 불만족 이유로 시간부족(50.0%)과 경제적 부담(48.3%)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연령적으로 직장에서 고위 관리직이나 상급의 직위에 있는 전기베이비부머에게는 상대적으로 시간부족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여가를 즐기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직장업무에 더 몰입해야 하는 후기베이비부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보다는 시간부족이 더 큰 저해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후기베이비부머들이 전기 베이비부머 보다 여가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고). 한편, 소득수준이 '상'인 경우, 경제적 부담의 비율(20.0%)이 낮아지고, 시간부족(71.4%)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여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불만족에 대한 세대별 비교에서는 경제적 부담은 세대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간 부족의 비율은 노인세대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1 참고). 즉, 여가를 위한 비용은 세대와 무관하게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노인세대로 가면서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인세대의 경우, 여가활동을 위한 동반자가 없다는 불만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7.2%), 본 조사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불만족 이유가 15.1%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이 건강악화와 관련된 응답이었다.

〈표 13〉 세대별 여가시간활용 생각,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단위: 명, %)

구 분	베이비부머 세대	예비노인 세대	노인세대	Total N(%)
여가생활				
시간부족	92(41.6)	45(36.0)	32(19.3)	169(33.0)
불만족				
경제적 부담	119(53.8)	67(53.6)	90(54.2)	276(53.9)
이유				
정보프로그램 부족	0(0.0)	3(2.4)	3(1.8)	6(1.2)
여가시설 부족	1(0.5)	3(2.4)	3(1.8)	7(1.4)
여가 동반자 부재	5(2.3)	1(0.8)	12(7.2)	18(3.5)
자기설계 부족	1(0.5)	1(0.8)	1(0.6)	3(0.6)
기타	3(1.4)	5(4.0)	25(15.1)	33(6.4)
Total	221(100.0)	125(100.0)	166(100.0)	512(100.0)

지금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이 주어질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다'라는 응답이 24.6%인 것에 비해 '보다 여유로운 삶을 위해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세 배 정도 높은 71.6%로 조사되었다(표 14 참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소득수준별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상'인 경우 여유로운 삶을 위해 여가시간을 늘리겠다는 비율(84.4%)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가생활을 즐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퇴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보다는 여가시간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표 14〉 성별, 베이비부머구분,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향후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생각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다	보다 여유로운 삶을 위해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다	기타	x 2
전체		129(24.6)	376(71.6)	20(3.8)	
성별	남자	74(28.5)	176(67.7)	10(3.8)	4.28
	여자	55(20.8)	200(75.5)	10(3.8)	
베이비부머	전기 B.B	67(26.4)	177(69.7)	10(3.9)	0.93
	후기 B.B	62(22.9)	199(73.4)	10(3.7)	
소득수준	하	63(39.4)	89(55.6)	8(5.0)	36.36***
	중	55(21.5)	195(76.2)	6(2.3)	
	상	11(10.1)	92(84.4)	6(5.5)	
교육수준	중졸이하	52(31.1)	109(65.3)	6(3.6)	7.28
	고졸	50(23.9)	151(72.2)	8(3.8)	
	대졸이상	27(18.1)	116(77.9)	6(4.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표 15〉 베이비부머의 제특성별 현재 삶에서 여가의 중요도 (단위: 명, %)

	매우 중요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8.8	60.6	22.6	7.3	0.7	100.0	(3,028)
출생년도							
전기 B.B	8.0	57.9	24.9	8.3	0.9	100.0	(1,632)
후기 B.B	9.7	63.7	19.9	6.2	0.5	100.0	(1,393)
성별							
남자	9.7	59.9	21.4	8.3	0.7	100.0	(1,433)
여자	7.9	61.1	23.7	6.5	0.8	100.0	(1,594)
교육수준							
초졸	3.1	48.1	27.8	18.4	2.5	100.0	(319)
중졸	3.8	56.5	28.3	10.4	1.0	100.0	(628)
고졸	8.7	62.6	22.8	5.6	0.4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5.5	65.6	15.2	3.2	0.5	100.0	(749)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9	51.2	29.7	14.0	1.2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8.9	61.1	23.0	6.5	0.6	100.0	(1,050)
500만원 이상	13.3	69.1	15.4	1.8	0.4	100.0	(1,007)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현 베이비붐 세대의 69.4%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기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이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높을 뿐 성별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6〉 베이비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도 (단위: 명, %)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16.4	67.3	14.1	2.2	0.0	100.0	(3,028)
출생년도							
전기 B.B	14.7	66.0	17.0	2.3	0.1	100.0	(1,632)
후기 B.B	18.4	68.8	10.7	2.1	0.0	100.0	(1,393)
성별							
남자	16.7	66.8	14.0	2.4	0.1	100.0	(1,433)
여자	16.2	67.7	14.1	1.9	0.1	100.0	(1,594)
교육수준							
초졸	10.0	52.2	27.8	10.0		100.0	(319)
중졸	9.9	68.1	19.0	3.0	0.0	100.0	(628)
고졸	16.2	70.4	12.5	1.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25.1	67.6	6.8	0.4	0.1	100.0	(749)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2.5	61.8	20.7	5.1	0.0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14.2	69.6	15.0	1.1	0.0	100.0	(1,050)
500만원 이상	22.6	70.0	6.7	0.5	0.1	100.0	(1,007)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83.7%는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후 여가 중요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후기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여가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II. 여가활동 유형

1. 현재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에 대한 유형별 비교

〈표 17〉 세부 여가활동(1순위-5순위 종합 집계 및 1순위 빈도 및 비율)(단위: 명, %)

세부 여가활동	전체	1순위	세부 여가활동	전체	1순위
TV시청	426 (16.2)	315 (60.0)	육상/조깅/속보*	37 (1.4)	9 (1.7)
낮잠	171 (6.5)	24 (4.6)	미용(피부 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37 (1.4)	0 (0.0)
등산	158 (6.0)	16 (3.0)	독서/만화책 보기	35 (1.3)	11 (2.1)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145 (5.5)	6 (1.1)	헬스(보디빌딩)/에어로빅*	34 (1.3)	7 (1.3)
산책	143 (5.4)	14 (2.7)	드라이브	32 (1.2)	1 (0.2)
목욕/사우나/찜질방	138 (5.3)	4 (0.8)	애완동물 돌보기	23 (0.9)	11 (2.1)
쇼핑/외식	132 (5.0)	3 (0.6)	배드민턴/줄넘기/맨손체조/스트레칭/홀라후프*	23 (0.9)	3 (0.6)
종교활동	109 (4.2)	8 (1.5)	게임 (인터넷, 닌텐도, PSP, PS3 등)	23 (0.9)	3 (0.6)
음주	98 (3.7)	4 (0.8)	노래방 가기	16 (0.6)	0 (0.0)
계모임/동창회/사교(파티)모임	98 (3.7)	2 (0.4)	바둑/장기/체스	16 (0.6)	0 (0.0)
영화보기	71 (2.7)	2 (0.4)	사회봉사활동	15 (0.6)	0 (0.0)
신문/잡지보기	63 (2.4)	22 (4.2)	음악 감상	14 (0.5)	2 (0.4)
구기운동(테니스/스쿼시/농구/배구/축구, 족구 등)*	61 (2.3)	10 (1.9)	삼림욕	14 (0.5)	0 (0.0)
스포츠 경기관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60 (2.3)	2 (0.4)	요가/필라테스/태보*	13 (0.5)	3 (0.6)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59 (2.2)	2 (0.4)	수상운동(수영, 윈드서핑, 수상스키, 래프팅 등)*	13 (0.5)	2 (0.4)
인터넷 검색/채팅	48 (1.8)	8 (1.5)	요리하기/다도	13 (0.5)	1 (0.2)
가족 및 친지방문	42 (1.6)	0 (0.0)	지역축제 참가	12 (0.5)	1 (0.2)
라디오 청취	38 (1.4)	13 (2.5)	문화유적방문 (고궁, 절, 유적지 등)	12 (0.5)	0 (0.0)
낚시	38 (1.4)	0 (0.0)	사이클링/산악자전거*	10 (0.4)	3 (0.6)

*: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유형 범주

〈표 17〉는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세부 활동별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응답하게 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1순위의 응답결과와 1순위에서 5순위의 응답결과를 종합 집계한

전체 비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순위에서 5순위를 모두 집계한 전체 순위에서 TV시청(16.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낮잠(6.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 여가유형을 살펴보면, TV시청(60.0%)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낮잠(4.6%), 신문/잡지 보기(4.2%), 등산(3.0%), 산책(2.7%), 라디오 청취(2.5%), 독서/만화 보기 및 애완동물 돌보기(2.1%) 등으로 나타났다.

등산과 산책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유형은 집안에서의 여가활동이며, 대부분이 주로 혼자서 즐기는 여가활동 유형인 것을 조사되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를 집계한 전체 빈도와 비율을 보면, 가장 높았던 TV시청과 낮잠을 제외하고, 친구만남/동호회 모임(5.5%),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3.7%),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2.2%) 등 대인관계에 관련된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동 및 스포츠 활동유형은 구기운동, 육상, 수상운동, 헬스/에어로빅, 배드민턴/줄넘기/맨손체조, 요가/필라테스/태보, 사이클링/산악자전거 등으로 개별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1순위에서 빈도와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지만, 이들을 ‘운동 및 스포츠 활동유형’의 범주에 모두 포함시키면 총 34명(6.5%)으로 TV시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을 보이는 여가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베이비 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이소정, 2010)의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TV시청의 높은 비율은 베이비 부머들의 여가 현황을 보여주는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여가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나 실천영역에서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 TV시청이 1순위에서는 60%, 전체 순위에서는 1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가활동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TV시청 이외의 다양한 여가유형들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표 18〉 여가유형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문화예술, 스포츠, 관광활동)(단위: 명, %)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A, B N(%)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C, D N(%)		관광활동 E N(%)	
A1 전시회관람	37(7.0)	C1 <u>스포츠관람*</u>	91(17.3)	E1 문화유적방문	39(7.4)
A2 박물관관람	18(3.4)	C2 격투기관람	8(1.5)	E2 자연명승/풍경관람	37(7.0)
A3 음악연주회관람	33(6.3)	C3 온라인게임관람	3(0.6)	E3 삼림욕	59(11.2)
A4 전통예술관람	22(4.2)	D1 <u>구기운동*</u>	102(19.4)	E4 국내캠핑	45(8.6)
A5 연극관람	59(11.2)	D2 수상운동	48(9.1)	E5 해외여행	211(40.2)
A6 무용관람	6(1.1)	D3 설상운동	6(1.1)	E6 소풍/야유회	12(2.3)
A7 <u>영화보기*</u>	144(27.4)	D4 빙상운동	2(0.4)	E7 온천/해수욕장	60(11.4)
A8 연예공연관람	81(15.4)	D5 <u>헬스*</u>	76(14.5)	E8 유람선타기	12(2.3)
B1 문학행사참여	5(1.0)	D6 요가	60(11.4)	E9 테마파크가기	4(0.8)
B2 서예	10(1.9)	D7 배드민턴/맨손	31(5.9)	E10 놀이공원/동식물원	2(0.4)
B3 문예/독서토론	5(1.0)	D8 <u>육상/조깅/속보*</u>	37(7.0)	E11 지역축제참가	14(2.7)
B4 미술활동	7(1.3)	D9 격투기운동	5(1.0)	E12 드라이브	30(5.7)
B5 악기연주/노래	55(10.5)	D10 댄스스포츠	33(6.3)		
B6 전통예술배우기	11(2.1)	D11 사이클링/산악	21(4.0)		
B7 사진촬영	28(5.3)	D12 인라인스케이팅	2(0.4)		
B8 춤/무용	4(0.8)				

*; 굵은 글씨와 밑줄 친 여가활동들은 ‘현재의 여가활동’ 1순위에서 5순위 종합 집계에서 5%이상의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

〈표 18〉과 〈표 19〉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여가활동 유형을 크게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등 총 8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지만, 희망여가활동을 위한 설문 문항에서는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휴식/사회 및 기타활동’ 등 세 개의 영역내에서 희망하는 여가활동들을 각각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체 여가활동들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1순위에서 5순위로 선택하도록 한 〈표 17〉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개별영역 내에서의 여가활동들은 비교가 가능하지만, 영역들간의 희망 여가활동들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8〉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유형 내에서 하고 싶은 활동들 중에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영화보기(27.4%), 연예공연관람(15.4%),

연극관람(11.2%), 악기연주/노래(10.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에 전시회 관람(7.0%), 음악연주회 관람(6.3%), 사진촬영(5.3%)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유형 중에는 구기운동(19.4%), 스포츠관람(17.3%), 헬스(14.5%), 요가(11.4%) 등으로 나타남. 또한, 수상운동(9.1%), 육상/조깅/속보(7.0%), 댄스스포츠(6.3%), 배드민턴/맨손체조(5.9%) 등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활동유형에서는 해외여행이 40.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온천/해수욕장(11.4%)과 삼림욕(11.2%)로 나타남. 이밖에 국내캠핑(8.6%), 문화유적방문(7.4%), 자연명승/풍경관람(7.0%)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9〉 여가유형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취미오락,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단위: 명, %)

취미오락활동 F		휴식활동 G		사회 및 기타활동 H	
F1	수집활동 4(0.8)	G1	산책* 14(2.7)	H1	사회봉사 34(6.5)
F2	생활공예 7(1.3)	G2	목욕/샤우너* 21(4.0)	H2	종교활동* 32(6.1)
F3	요리/다도 18(3.4)	G3	낮잠* 21(4.0)	H3	클럽/나이트 0(0.0)
F4	애완동물돌보기 2(0.4)	G4	TV시청* 5(1.0)	H4	가족친지방문* 10(1.9)
F5	노래방 11(2.1)	G5	비디오 1(0.2)	H5	잡담/통화/문자* 1(0.2)
F6	인테리어 7(1.3)	G6	라디오청취* 1(0.2)	H6	계모임/동창회* 9(1.7)
F7	등산* 102(19.4)	G7	음악감상 2(0.4)	H7	이성교제/미팅 4(0.8)
F8	낚시* 62(11.8)	G8	신문잡지* 1(0.2)	H8	친구만남/동호회* 34(6.5)
F9	미니홈피/블로그 1(0.2)			H9	기타 1(0.2)
F10	UCC제작 0(0.0)				
F11	인터넷검색/채팅* 7(1.3)				
F12	게임 1(0.2)				
F13	보드게임/퍼즐 0(0.0)				
F14	바둑/장기/체스 7(1.3)				
F15	겜블/복권구입 3(0.6)				
F16	쇼핑/외식* 30(5.7)				
F17	음주* 2(0.4)				
F18	독서/만화책* 10(1.9)				
F19	미용* 36(6.9)				
F20	여학, 공부, 학원 24(4.6)				

*: 굵은 글씨와 밑줄 친 여가활동들은 '현재의 여가활동' 1순위에서 5순위 종합 집계에서 5%이상의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

〈표 19〉에서는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그리고 사회 및 기타활동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응답하도록 하였지만, 표에서는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취미·오락활동 유형에서는 등산(19.4%)와 낚시(11.8%)가 10%를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비록 10% 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미용(6.9%)와 쇼핑/외식(5.7%) 등 여성취향적인 여가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학, 공부, 학원(4.6%) 등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활동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식활동 유형에서는 희망하는 비율이 5%이상인 여가활동이 하나도 없었으며, 특히 현재의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TV시청을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이었으며, 낮잠의 경우에도 4.0%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재 여가활동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던 '신문/잡지 보기'는 1명만이 응답하여 0.2%의 비율을 보였고, 비교적 높은 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던 산책에서도 2.7%의 선호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및 기타활동 유형에서는 사회봉사활동과 친구만남/동호회가 각각 6.5%의 선호도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종교활동(6.1%)으로 조사되었다.

〈표 20〉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 비교 및 특성

여가활동 유형	현재 여가활동A	희망 여가활동B	특성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 영화관람	· 영화관람 · 연예공연관람 · 연극관람 · 전시회관람 · 음악연주회관람 · 악기연주/노래 · 사진촬영	· 문화예술관람이 영화관람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 자아실현적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 스포츠관람 · 구기운동 · 헬스 · 육상/조깅/속보	· 스포츠관람 · 구기운동 · 헬스 · 요가 · 댄스스포츠 · 밴드민턴/맨손체조	·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이 유사함.
관광활동 및 나들이	· 드라이브	· 해외여행 · 온천/해수욕장 · 삼림욕 · 국내캠핑 · 드라이브 · 문화유적방문 · 자연명승/풍경방문	· 현재 여가활동으로 즐기지 못하고 있으나 희망 여가활동으로 많은 영역들이 도출됨.

여가활동 유형	현재 여가활동A	희망 여가활동B	특성
취미오락활동	· 등산 · 낚시 · 쇼핑/외식 · 음주 · 독서/만화책 · 미용 · 인터넷검색/채팅	· 등산 · 낚시 · 미용 · 쇼핑/외식 · 어학, 공부, 학원	·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이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어학, 공부, 학원 등 평생 학습에 대한 관심이 보여짐
휴식활동	· TV시청 · 낮잠 · 산책 · 목욕/사우나 · 신문잡지보기 · 라디오청취	-	· 현재 여가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희망여가활동에는 전무함.
사회 및 기타활동	· 친구만남/동호회 · 종교활동 ·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 가족 및 친지방문 · 잡담/통화/문자	· 사회봉사 · 친구만남/동호회 · 종교활동	·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희망여가활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이 새롭게 등장.

A: 현재 여가활동 중에서 1순위와 5순위 전체 합계에서 1%이상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

B: 희망여가활동 중에서 5%이상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

〈표 20〉은 현재 여가활동 중에서 1% 이상의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과 여가유형의 영역별로 5%이상의 비율을 보인 희망여가활동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여가활동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여가유형(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현재여가활동은 미미하지만 희망 여가활동으로 많은 활동이 부각되는 여가유형(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관광활동), 반면에 현재 여가활동으로 많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희망여가활동에서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여가유형(휴식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과 취미·오락활동, 그리고 사회 및 기타활동은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스포츠관람과 구기운동, 헬스 등이 희망여가활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요가, 댄스스포츠, 밴드민턴/맨손체조 등은 새롭게 희망 여가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등산과 낚시, 쇼핑/외식, 미용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음주, 독서/만화책/인터넷검색 및 채팅은 현재 여가활동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지만, 희망 여가활동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에 어학, 공부, 학원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습활동이 새롭게 희망여가활동으로 부각되었다.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에서는 친구만남/동호회와 종교활동은 현재활동과 희망활동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현재 여가활동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던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문자 대신에 '사회봉사활동'이 희망 여가활동으로 부각되었다.

현재 여가활동에서는 미미하지만 희망여가활동으로 많은 여가활동이 나타난 경우는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과 관광활동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현재 여가활동을 영화관람만이 유일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희망 여가활동에서는 영화관람, 연예공연관람, 연극관람, 전시회관람, 음악연주회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관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을 스스로 창조하고 즐기기 위한 자기실현적 문화예술여가활동으로 악기연주/노래와 사진촬영이 희망 여가활동으로 제시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광활동의 경우, 현재 여가활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여가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여행, 국내캠핑, 문화유적지방문, 자연명승지/풍경방문 등 여행관련 활동과 더불어 온천/해수욕장과 삼림욕 등이 새롭게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베이비부머들에게 여가활용에 가장 불만족한 이유가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부담이었는데, 관광활동이야말로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여가활동이라는 점에서 은퇴 이전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기 보다는 은퇴 이후 시간적인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시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가활동유형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여가유형이 휴식활동이었는데, 희망 여가활동으로는 하나의 활동도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비부머 응답자들은 휴식보다는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여가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지려는 개인의 인식변화와 노력은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가시설의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여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1〉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른 현재 및 희망 여가활동 비교

성별	여가활동 유형	현재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남자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 영화관람 31(2.4)	· 영화관람 76(29.2) · 악기연주/노래교실 19(7.3) · 연예공연관람 37(14.2) · 박물관관람 15(5.8) · 전시회관람 24(9.2) · 전통예술공연관람 13(5.0) · 사진촬영 22(8.5) · 연극공연관람 20(7.7)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 구기운동 49(3.8) · 스포츠관람 48(3.7) · 헬스 21(1.6) · 육상/조깅/속보 19(1.5)	· 구기운동 73(28.1) · 배드민턴/줄넘기/맨손 16(6.2) · 스포츠관람 70(26.9) · 사이클링/산악자전거 15(5.8) · 헬스 32(12.3) · 육상/조깅/속보 13(5.0) · 수상운동 20(7.7)
	관광활동	· 드라이브 18(1.2)	· 해외여행 107(41.2) · 온천/해수욕 21(8.1) · 삼림욕 33(12.7) · 드라이브 17(6.5) · 국내캠핑 23(8.8) · 자연명승및풍경관람 16(6.2) · 문화유적방문 22(8.5)
	취미오락활동	· 등산 100(7.7) · 게임 19(1.5) · 음주 81(6.2) · 바둑/장기/체스 16(1.2) · 낚시 38(2.9) · 독서/만화책보기 14(1.1) · 쇼핑/외식 36(2.8) · 인터넷검색/채팅 34(2.6)	· 낚시 58(22.3) · 등산 57(21.9)
	휴식활동	· TV시청 212(16.3) · 목욕/사우나/찜질방 45(3.5) · 낮잠 83(6.4) · 라디오청취 15(1.2) · 산책 54(4.2) · 신문/잡지보기 48(3.7)	· 낮잠 15(5.8)
	사회 및 기타활동	· 친구만남/동호회 79(6.1) · 종교활동 35(2.7) · 가족 · 친지방문 20(1.5) ·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40(3.1) · 잡담/통화/문자 13(1.0)	· 친구만남/동호회 23(8.8) · 사회봉사활동 15(5.8)

성별	여가활동 유형	현재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여자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 영화관람 40(3.0)	· 영화관람 68(25.7) · 악기연주/노래교실 36(13.6) · 연예공연관람 44(16.6) · 음악연주회관람 21(7.9) · 연극공연관람 39(14.7)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 육상/조깅/속보 18(1.4) · 헬스 13(1.0)	· 요가/필라테스/태보 59(22.3) · 육상/조깅/속보 24(9.1) · 헬스 44(16.6) · 스포츠관람 21(7.9) · 구기운동 29(10.9) · 배드민턴/줄넘기/맨손스트레칭 15(5.7) · 수상운동 28(10.6) · 댄스스포츠 28(10.6)
	관광활동	· 드라이브 14(1.1)	· 해외여행 104(39.2) · 자연명승및풍경관람 21(7.9) · 온천/해수욕 39(14.7) · 문화유적방문 17(6.4) · 산림욕 26(9.8) · 국내캠핑 22(8.3)
	취미오락활동	· 쇼핑/외식 96(7.2) · 애완동물돌보기 14(1.1) · 등산 58(4.4) · 인터넷검색/채팅 14(1.1) · 미용 33(2.5) · 독서/만화책 21(1.6) · 음주 17(1.3)	· 등산 45(17.0) · 여학,기술,자격증취득,공부학원등 19(7.2) · 미용 35(13.2) · 요리하기/다도 16(6.0) · 쇼핑/외식 21(7.9)
	휴식활동	· TV시청 214(16.2) · 낮잠 88(6.6) · 목욕/사우나/찜질방 93(7.0) · 라디오청취 23(1.7) · 산책 89(6.7) · 신문/잡지보기 15(1.1)	· 목욕/사우나/찜질방 14(5.3)
	사회 및 기타활동	· 종교활동 74(5.6) · 계모임/동창회/사교 모임 58(4.4) · 친구만남/동호회 66(5.0) · 잡담/통화/문자 46(3.5) · 가족 · 친지방문 22(1.7)	· 종교활동 24(9.1) · 사회봉사활동 19(7.2)

참고; 현재 여가활동은 현재 여가활동 중에서 1순위와 5순위 전체 합계에서 1%이상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이며, 희망 여가활동은 희망 여가활동 중에서 5%이상 비율을 보인 여가활동임.

〈표 21〉은 베이비 부머들의 현재와 희망 여가활동들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여가활동의 경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과 관광활동 영역에서의 현재 여가활동에 비해 희망여가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영역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재 여가활동이 비교적 다양하지만, 남녀 모두 현재 여가활동보다는 희망 여가활동

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휴식활동 영역에서는 남녀 모두 현재 여가활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희망 여가활동으로는 남성은 낮잠, 여성은 목욕/사우나/찜질방으로 하나의 여가활동만이 제시되었다. 사회 및 기타활동 영역에서도 남녀 모두 현재에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지만, 희망여가활동으로는 사회봉사활동과 친구만남/동호회(남성), 종교활동(여성) 등 두 개의 여가활동만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남녀별로 현재여가활동과 희망여가활동의 비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 모두 8개의 활동이 현재여가활동으로 제시되었지만, 희망여가활동에서는 낚시와 등산 등 두 개 활동만이 제시된 반면에, 여성은 7개의 현재여가활동에 대해 희망여가활동으로 5개의 활동이 제시되었다.

여가활동 유형별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여가활동이 있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영역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전시회관람, 박물관관람, 전통예술관람 등 관람에 관심이 높으며, 사진촬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여성은 음악연주회 관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남자는 사이클링/산악자전거를 하고 싶어하지만, 여성들은 요가/필라테스/태보, 댄스 스포츠를 하고 싶어했다.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남성은 낚시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성은 미용, 어학/기술 자격증 등 학습활동, 그리고 요리하기/다도 등 다양한 영역의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했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서는 남성은 친구만남/동호회 활동을 선호했지만, 여성은 종교활동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의 비교에서 성별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베이비 부머들의 여가참여 욕구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대별로 현재 여가활동을 비교해 볼 때, 베이비 부머 세대의 현재 여가활동은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세대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22 참고). 이는 희망 여가활동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23 참고). 이는 희망 여가활동이 실제 여가활동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베이비 부머 세대의 희망 여가활동이 은퇴 이후 이들이 예비노인 세대가 되었을 때 실제 여가활동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대별 여가활동 비교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다만, 여가활동과 관련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성들(예,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등)이 예비노인세대나 노인세대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희망 여가활동이 실제 여가활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희망 여가활동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에게만 맡겨 놓기 보다는 일 중심의 문화적 성향이 높은 이들에게 여가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며, 여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 세대별 현재 여가활동 비교

여가활동 유형	베이비붐 세대 현재 여가활동	예비노인세대(56세-64세) 현재 여가활동	노인세대(65세 이상) 현재 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영화관람	·영화관람	-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관람 ·구기운동 ·헬스 ·육상/조깅/속보	·스포츠관람 ·구기운동 ·육상/조깅/속보 ·헬스	·육상/조깅/속보
관광활동	-	-	·온천/해수욕
취미오락활동	·등산 ·낚시 ·쇼핑/외식 ·음주 ·독서/만화책 ·미용 ·인터넷검색/채팅	·등산 ·낚시 ·쇼핑/외식 ·음주 ·독서/만화책 ·미용	·쇼핑/외식 ·미용 ·등산 ·캠블(예, 화투) ·음주 ·독서/만화책
휴식활동	·TV시청 ·낮잠 ·산책 ·목욕/사우나 ·신문잡지보기 ·라디오정취	·TV시청 ·산책 ·낮잠 ·목욕/사우나 ·신문잡지보기 ·라디오정취 ·음악감상	·TV시청 ·산책 ·낮잠 ·목욕/사우나 ·신문잡지보기 ·라디오정취
사회 및 기타활동	·친구만남/동호회 ·종교활동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문자	·종교활동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친구만남/동호회 ·잡담/통화/문자 ·가족 및 친지방문	·친구만남/동호회 ·잡담/통화/문자 ·종교활동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가족 및 친지방문

〈표 23〉 세대별 희망 여가활동 비교

여가활동 유형	베이비붐 세대 희망여가활동	예비노인세대 희망여가활동	노인세대 희망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영화관람 ·연예공연관람 ·연극관람	·전시회관람 ·음악연주회관람 ·악기연주/노래 ·사진촬영	·연예공연관람 ·전시회관람 ·영화관람 ·연예공연관람 ·영화관람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관람 ·구기운동 ·헬스 ·요가/태보	·댄스스포츠 ·밴드민턴/맨손체조	·연예공연관람 ·전시회관람 ·악기연주/노래 ·사진촬영 ·서예
관광활동	·해외여행 ·온천/해수욕장 ·삼림욕	·국내캠핑 ·문화유적지방문 ·자연명승지/풍경방문	·전통예술관람 ·박물관 관람 ·악기연주/노래 ·영화관람
취미오락활동	·등산 ·낚시 ·미용	·스포츠관람 ·요가/태보 ·구기운동 ·배드민턴/맨손체조	·스포츠관람 ·수상운동 ·헬스 ·육상/조깅/속보
휴식활동	·소풍/외식	·해외여행 ·온천/해수욕장 ·자연명승지/풍경방문 ·삼림욕	·문화유적지방문 ·문학선 ·지역축제 ·국내캠핑
취미오락활동	·등산 ·낚시 ·미용	·등산 ·낚시 ·소풍/외식	·온천/해수욕장 ·삼림욕 ·유람선 ·해외여행 ·자연명승지 ·풍경방문
휴식활동	-	-	·목욕/사우나/찜질방 ·산책
사회 및 기타활동	·사회봉사 ·친구만남/동호회 ·종교활동	·사회봉사 ·친구만남/동호회 ·종교활동	·사회봉사 ·친구만남/동호회 ·가족친지방문

〈표 24〉 세대별 여가동반자 비교

구 분	베이비부머 세대	예비노인 세대	노인세대	Total	x 2
여가 동반자	혼자서	299 (57.0)	179 (51.1)	343 (54.1)	28.10**
	가족 및 친척	181 (34.5)	148 (42.3)	220 (34.7)	
	친구(연인)	30 (5.7)	16 (4.6)	61 (9.6)	
	직장 동료	9 (1.7)	2 (0.6)	0 (0.0)	
	동호회 회원	5 (1.0)	4 (1.1)	8 (1.3)	
	기타	1 (0.2)	1 (0.3)	2 (0.3)	
Total	525 (100.0)	350 (100.0)	634 (100.0)	1,509 (100.0)	

베이비 부머세대는 특히 빈둥지 시기가 19.4년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노후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한경혜, 2011). 또한, 부부간의 연령차이와 학력차이가 감소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

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여가동반자 현황을 보면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57.0%를 나타내고 있다. 배우자가 포함된 가족 및 친척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비율에서도 34.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비록 예비노인세대는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세대에서 다시 34.7%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장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남성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이후에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부부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이전 시기부터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여가패턴에 따른 분석

여가활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여가활동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얼마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본인의 여가활동을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여가활동들을 토대로 개인의 여가활동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순위에서 3순위에 해당되는 세 가지 여가활동들을 활용하였으며, 세부 여가활동들을 A에서 H까지 총 8개 여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25〉 베이비 부머세대의 여가활동 패턴 유형(단위: 명, %)

1~3순위			2~4순위			
선택패턴*	설명	현황	선택패턴*	설명	현황	
앞뒤오락	DDD	모두 스포츠참여 활동	1(0.2)	FFF	모두 취미오락 활동	6(1.1)
	FFF	모두 취미오락 활동	1(0.2)	GGG	모두 휴식 활동	19(3.6)
	GGG	모두 휴식 활동	64(12.2)	HHH	모두 사회 및 기타 활동	1(0.2)
	소계		66(12.6)	소계		26(5.0)
중앙복합	OOX	앞중복형	127(24.2)	OOX	앞중복형	107(20.4)
	XOO	뒤중복형	67(12.8)	XOO	뒤중복형	89(17.0)
	OXO	앞뒤중복형	63(12.0)	OXO	앞뒤중복형	61(11.6)
	B중복형	문화예술참여활동 중복	1(0.2)	A중복형	문화예술관람활동 중복	1(0.2)
	D중복형	스포츠참여활동 중복	9(1.7)	D중복형	스포츠참여활동 중복	9(1.7)
	F중복형	취미오락활동 중복	45(8.6)	E중복형	관광활동 중복	1(0.2)
	G중복형	휴식활동 중복	185(35.2)	F중복형	취미오락활동 중복	88(16.8)
	H중복형	사회 및 기타활동 중복	17(3.2)	G중복형	휴식활동 중복	120(22.9)
	소계		257(49.0)	소계		257(49.0)
	앞뒤관람	A주도형	문화예술관람활동 주도	4(0.8)	A주도형	문화예술관람활동 주도
B주도형		문화예술참여활동 주도	1(0.2)	B주도형	문화예술참여활동 주도	2(0.4)
C주도형		스포츠관람활동 주도	3(0.6)	C주도형	스포츠관람활동 주도	7(1.3)
D주도형		스포츠참여활동 주도	24(4.6)	D주도형	스포츠참여활동 주도	43(8.2)
E주도형		관광활동 주도	2(0.4)	E주도형	관광활동 주도	8(1.5)
F주도형		취미오락활동 주도	27(5.1)	F주도형	취미오락활동 주도	46(8.8)
G주도형		휴식활동 주도	133(25.3)	G주도형	휴식활동 주도	89(17.0)
H주도형		사회 및 기타활동 주도	8(1.5)	H주도형	사회 및 기타활동 주도	42(8.0)
소계			202(38.5)	소계		242(46.1)
Total			525(100.0)	Total		525(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 A유형:문화예술관람활동, B유형:문화예술참여활동, C유형:스포츠관람활동, D유형:스포츠 참여활동

E유형:관광활동, F: 취미오락활동, G:휴식활동, H: 사회 및 기타활동

〈표 25〉은 여가활동 우선순위 중에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택한 여가활동들을 조사하여, 여가활동의 유사성(여가활동 유형 범주)에 따라 여가패턴을 구분한 것을 제시하였다. 즉, 세 가지 활동 모두가 동일한 여가유형 범주에 속할 경우 ‘동일형’, 두 개만이 동일한

여가유형 범주에 속하면 '중복형', 그리고 세 가지 여가활동이 모두 다른 유형범주에 속할 경우 '혼합형'이라고 칭하였다.

동일형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2.6%, 중복형은 49.0%, 혼합형은 38.5%로 중복형의 여가패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여가패턴에서 휴식활동(G유형)이 가장 많아서 동일형의 경우 세 가지 여가활동이 모두 휴식활동인 경우(G동일형)가 97%인 64명이었고, 휴식활동이 두 개로 중복된 경우가 72%인 185명(G중복형), 그리고 혼합형 중에서도 1순위가 휴식활동(G주도 혼합형)이 65.8%인 13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 범주에 TV시청과 낮잠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응답자들이 1순위로 TV시청과 낮잠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1순위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TV시청 또는 낮잠 응답성향을 감안하여 2순위부터 4순위까지 세 가지 여가활동 유형으로 다시 여가패턴을 재구성해 보아도, 휴식활동 중심으로 여가패턴 특성은 유지되고 있었다.

〈표 26〉 세대별 여가활동 패턴 유형 비교(단위: 명, %)

구 분	베이비부머 세대	예비노인 세대	노인세대
동일형	66(12.6)	66(18.9)	158(24.9)
중복형	257(49.0)	194(55.4)	370(58.4)
혼합형	202(38.5)	90(25.7)	106(16.7)
Total	525(100.0)	350(100.0)	634(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표 26〉은 여가활동 패턴 비율을 세대별로 제시하고 있다. 중복형의 여가패턴은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형 여가패턴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노인세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일형 중에서도 휴식활동 중심의 여가활동(GGG패턴)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세대의 30%정도는 휴식

활동과 관련된 여가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혼합형 여가패턴은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노인세대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노인세대 내에서도 혼합형 여가패턴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노인세대들의 여가 다양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27〉 베이비 부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여가활동 패턴 유형 비교 (단위: 명, %)

구분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	Total	x 2	
잔후기	후기 베이비부머	34 (12.5)	128 (47.2)	109 (40.2)	271 (100.0)	0.782
	전기 베이비부머	32 (13.8)	129 (50.8)	93 (36.6)	254 (100.0)	
성별	남자	28 (10.8)	125 (48.1)	107 (41.2)	260 (100.0)	2.371
	여자	38 (14.3)	132 (49.8)	95 (35.9)	265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 (16.2)	91 (54.5)	49 (29.3)	167 (100.0)	13.573**
	고졸	28 (13.4)	99 (47.4)	82 (39.2)	209 (100.0)	
	대졸 이상	11 (7.4)	67 (50.0)	71 (47.6)	149 (100.0)	
소득수준	하	40 (15.2)	133 (50.6)	90 (34.2)	263 (100.0)	11.105*
	중	21 (13.7)	72 (47.1)	60 (39.2)	153 (100.0)	
	상	5 (4.6)	52 (47.6)	52 (47.7)	109 (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여가패턴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8 참고). 후기 베이비 부머들 중에서는 중복형 패턴(47.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혼합형(40.2%), 동일형(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베이비 부머들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복형과 혼합형의 비율차이가 더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중복형, 혼합형, 동일형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동일형 패턴이 더 많고, 혼합형 패턴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이 동일형 패턴이 가장 적은 7.4%인 반면에 혼합형 패턴은 47.6%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일형

여가패턴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혼합형 여가패턴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 여가활동 패턴 별 여가시간, 여가비용 비교(단위: 시간, 분, 천원)

구 분			동일형(a) (N=66)	중복형(b) (N=257)	혼합형(c) (N=202)	F값	Duncan Test
여가시간	하루평균여가시간	평일	3.82	3.61	3.46	0.816	cba
		휴일	6.94	6.35	6.71	1.387	bca
	희망여가시간	평일	5.08	4.93	4.88	0.291	cba
		휴일	8.12	7.96	8.44	1.700	bac
1회 여가활동 소요시간(1순위)			131.67	128.48	135.74	0.435	bac
여가비용	월평균 여가비용		116.67	172.11	199.65	4.171*	a/bc
	월평균 희망여가비용		247.82	277.45	296.58	1.170	abc
1회 여가활동 비용(1순위)			0.55	2.05	4.77	6.316**	ab/c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혼합형이 동일형보다 실제로 소비한 여가시간은 평일이나 휴일 모두 적게 나타나지만, 희망여가시간은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일형 여가패턴의 대부분이 휴식활동이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여가비용을 보면 혼합형이 동일형이나 중복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9〉 여가활동 패턴 별 여가목적, 참여경로, 동반자, 활동빈도 비교(단위: 명, %)

구 분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	Total	x 2
여가목적	건강	14 (21.2)	42 (16.3)	38 (18.8)	94 (17.9)	24,228
	즐거움	20 (30.3)	54 (21.0)	31 (15.3)	105 (20.0)	
	마음안정 및 휴식	8 (12.1)	57 (22.2)	47 (23.3)	112 (21.3)	
	대인관계	3 (4.5)	21 (8.2)	26 (12.9)	50 (9.5)	
	스트레스 해소	15 (22.7)	58 (22.6)	37 (18.3)	110 (21.0)	
	자기계발	0 (0.0)	3 (1.2)	3 (1.5)	6 (1.1)	
	자기만족	2 (3.0)	12 (4.7)	16 (7.9)	30 (5.7)	
	시간 보내기	4 (6.1)	8 (3.1)	4 (2.0)	16 (3.0)	
	기타	0 (0.0)	2 (0.8)	0 (0.0)	2 (0.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여가패턴별로 여가목적을 살펴보면, 동일형에서는 즐거움(30.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22.7%)와 건강(21.2%) 순으로 나타났고, 중복형에서는 스트레스 해소(22.6%), 마음의 안정 및 휴식(22.2%), 그리고 즐거움(21.0%)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건강추구는 동일형에 비해 다소 떨어진 16.3%로 나타났다. 한편, 혼합형에서는 마음의 안정과 휴식(2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건강(18.8%), 스트레스 해소(18.3%), 즐거움(15.3%), 대인관계(12.9%) 등 다양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대인관계는 동일형(4.5%), 중복형(8.2%)에 비해 12.9%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혼합형 여가패턴의 또 다른 특징으로 사료된다.

〈표 30〉 여가활동 선택패턴에 따른 여가인식 및 만족도, 행복수준 비교

구 분	동일형(a) (N=66)	중복형(b) (N=257)	혼합형(c) (N=202)	F값	Duncan Test
여가시간에 대한 생각 ^A	3.53	3.44	3.33	1.26	cba
여가비용에 대한 생각 ^A	3.98	3.65	3.65	5.59**	bc/a
여가생활만족도 ^B	3.50	3.25	3.14	2.85	cb/ba
행복수준 ^C	5.85	6.51	6.75	6.10**	a/bc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A: 여가시간 및 비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충분(1점)에서 매우 부족(5점)까지 5점 척도 활용.

B: 여가생활만족도는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1점)에서 매우 불만족(5점)까지 5점 척도를 활용.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불만족함.

C: 행복수준은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귀하가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행(1점)에서 매우 행복(10점)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점수를 표시하게 함.

*P<.05, **P<.01, ***P<.001

여가의 다양성이 개인의 여가만족도,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여가활동이라도 몰입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낮은 몰입도로 여러 개의 여가활동을 수행할 경우보다 오히려 더욱 긍정적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패턴에 따라서 여가시간과 비용에 대한 인식과 여가생활 만족도, 그리고 행복수준을 살펴보았다(표 30 참고).

여가시간과 비용에 대한 인식은 모든 유형에서 평균 3점이상을 보임으로써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동일형이 상대적으로 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혼합형(평균 3.33)이 여가시간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여가패턴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와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혼합형의 여가패턴을 가진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수준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표 31〉 여가활동 선택패턴 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단위: 명, %)

구 분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	Total	x 2
여가생활	시간부족	13(36.1)	56(51.4)	23(30.3)	92(41.6)	13.872
불만족	경제적 부담	22(61.1)	47(43.1)	50(65.8)	119(53.8)	
이유	정보프로그램 부족	0(0.0)	0(0.0)	0(0.0)	0(0.0)	
	여가시설 부족	0(0.0)	0(0.0)	1(1.3)	1(0.5)	
	여가 동반자 부재	1(2.8)	3(2.8)	1(1.3)	5(2.3)	
	자기설계 부족	0(0.0)	1(0.9)	0(0.0)	1(0.5)	
	기타	0(0.0)	2(1.8)	1(1.3)	3(1.4)	
Total		36(100.0)	109(100.0)	76(100.0)	221(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에 대해 여가패턴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일형(61.1%)과 혼합형(65.8%)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중복형(51.4%)은 시간부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형의 여가패턴이 주로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표 22 참고), 자신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여가활동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혼합형의 경우, 다양한 여가활동과 상대적으로 휴식활동 이외의 여가활동들을 즐기기 위한 실질적인 여가비용 부담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 여가활동 패턴 별 동호회 활동(단위: 명, %)

구 분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	Total	x 2
동호회	참여함	5 (0.02)	95 (43.6)	118 (54.1)	218 (100.0)	12.740**
참여여부	참여안함	21 (0.07)	162 (52.8)	124 (40.4)	307 (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P<.05, **P<.01, ***P<.001

동호회에 참여하는 응답자 중에서 혼합형 여가패턴(54.1%)이 가장 많은 반면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는 중복형 여가패턴(52.8%)이 가장 많은 것을 조사되었다.

3. 동호회 활동 분석

〈표 33〉 동호회 활동 참여여부(단위: 명, %)

		참여함	참여안함
전체		218(41.5)	307(58.5)
성별	남자	123(47.3)	137(52.7)
	여자	95(35.8)	170(64.2)
베이비부머	전기B.B	100(39.4)	154(60.6)
	후기B.B	118(43.5)	153(56.5)
교육수준	중졸이하	49(29.3)	118(70.7)
	고졸	87(41.6)	122(58.4)
	대졸이상	82(55.0)	67(45.0)
소득수준	하	41(25.6)	119(74.4)
	중	119(46.5)	137(53.5)
	상	58(53.2)	51(46.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전체 525명의 베이비부머 응답자 중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218명으로 41.5%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47.3%)가 여자(35.8%)보다 동호회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 베이비부머(39.4%) 보다는 후기 베이비부머(43.5%)의 동호회 가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호회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동호회의 주요 활동

주요 동호회	N	(%)
계모임/동창회	49	(22.5)
친구만남/동호회	43	(19.7)
구기운동	27	(12.4)
등산	20	(9.2)
사회봉사	17	(7.8)
종교활동	13	(6.0)
기타*	49	(22.5)
Total N(%)	218	(100.0)

*;기타 동호회는 5명(1.0%) 미만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내는 총 22개 동호회가 있음.

동호회의 주요 활동은 곧 동호회의 성격을 말해준다. 〈표 29〉에 따르면, 계모임이나 동창회(22.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만남이나 취미생활 동호회(19.7%), 구기운동(12.4%), 등산(9.2%)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7.8%)와 종교활동(6.0%)을 통한 동호회 활동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기운동(12.4%)을 포함하여 기타 동호회로 분류되었던 배드민턴/맨손체조(1.7%), 수상운동(1.1%), 사이클링/산악자전거(1.0%), 헬스(0.4%), 육상/조깅/속보(0.4%), 댄스스포츠(0.2%) 등 운동 및 스포츠 활동 동호회는 전체적으로 17.2%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5〉 참여 동호회 수(단위: 명, %)

	평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전체 (N=218)	2.43	89(17.0)	59(11.2)	28(5.3)	13(2.5)	18(3.4)	11(2.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표 36〉 동호회 참여빈도(단위: 명, %)

	매일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2~3번	한 달에 1번	몇 달에 1번
전체(N=218)	4(0.8)	29(5.5)	67(12.8)	89(17.0)	29(5.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는 1개인 응답자가 89명(1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개(59명, 11.2%), 3개에 동시에 동호회 가입을 한 응답자는 28명(5.3%)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가입 동호회 수는 2.43개로 나타났다.

동호회 참여빈도는 한 달에 1번이 가장 많은 89명(17.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한 달에 2~3번이 67명(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의 소속(단위: 명, %)

구분	직장	학교 (동문·동창)	온라인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타	Total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	28(22.8)	18(14.6)	11(8.9)	57(46.3)	7(5.7)	2(1.6)	123(100.0)
	여성	3(3.2)	5(5.3)	5(5.3)	63(66.3)	14(14.7)	5(5.3)	95(100.0)
	Total	31(14.2)	23(10.6)	16(7.3)	120(55.0)	21(9.6)	7(3.2)	218(100.0)
예비노인 세대	남성	4(6.1)	14(21.2)	0(0.0)	39(59.1)	6(9.1)	3(4.5)	66(100.0)
	여성	1(1.7)	9(15.3)	1(1.7)	29(49.2)	17(28.8)	2(3.4)	59(100.0)
	Total	5(4.0)	23(18.4)	1(0.8)	68(54.4)	23(18.4)	5(4.0)	125(100.0)
노인세대	남성	1(1.3)	8(10.0)	2(2.5)	56(70.0)	7(8.8)	6(7.5)	80(100.0)
	여성	0(0.0)	3(4.1)	0(0.0)	45(61.6)	22(30.1)	3(4.1)	73(100.0)
	Total	1(0.7)	11(7.2)	2(1.3)	101(66.0)	29(19.0)	9(5.9)	153(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의 소속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장(14.2%), 학교(10.6%), 종교단체(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는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66.3%로 남성 베이비부머(46.3%)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종교단체 동호회에서도 여성(14.7%)이 남성(5.7%)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직장 소속의 동호회는 남성(22.8%)이 여성(3.2%)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학교 소속 동호회에서도 남성(14.6%)이 여성(5.3%)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동호회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이나 학교중심의 동호회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직장소속의 동호회의 경우 베이비 부머 세대(14.2%)로 가장 높았고, 은퇴 이후의 세대인 예비노인과 노인세대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 중심의 동호회(예, 동창회)는 베이비 부머 세대(10.6%)보다 예비노인 세대(18.4%)가 더 높지만 노인세대에서는 7.2%에 불과하였다. 은퇴 이후 시기에 남성들을 중심으로 동문회 등 학교소속의 동호회 활동이 증가하지만, 노인세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소속 동호회의 경우 베이비 부머 세대와 예비노인세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활동인 동호회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비노인세대(54.5%)는 베이비 부머 세대(55.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인세대(66.0%)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기반 동호회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비율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와 예비노인세대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종교활동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9.6%인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는 18.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장 중심의 동호회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았고, 학교는 은퇴 직후인 예비노인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활동은 노인세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종교활동은 예비노인세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은퇴 이후 동호회 활동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은퇴 직후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활동 보다는 학교 중심의 동창회/동문회와 종교활동의 동호회 활동이 다소 강세를 보이다가 노인세대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동호회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8〉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단위: 명, %)

		더 많은 자유시간 필요	동호회 활동 공간 필요	설비, 장비 필요	동호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 필요	기타
전체(N=525)		269(51.2)	72(13.7)	43(8.2)	115(21.9)	26(5.0)
동호회 활동	활동함(N=218)	112(51.4)	40(18.3)	15(6.9)	43(19.7)	8(3.7)
	활동안함(N=307)	157(51.1)	32(10.4)	28(9.1)	72(23.5)	18(5.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더 많은 자유시간이 5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호회 참여와 확대를 위한 정보 필요가 21.9%,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필요가 13.7%, 설비 및 장비 필요가 8.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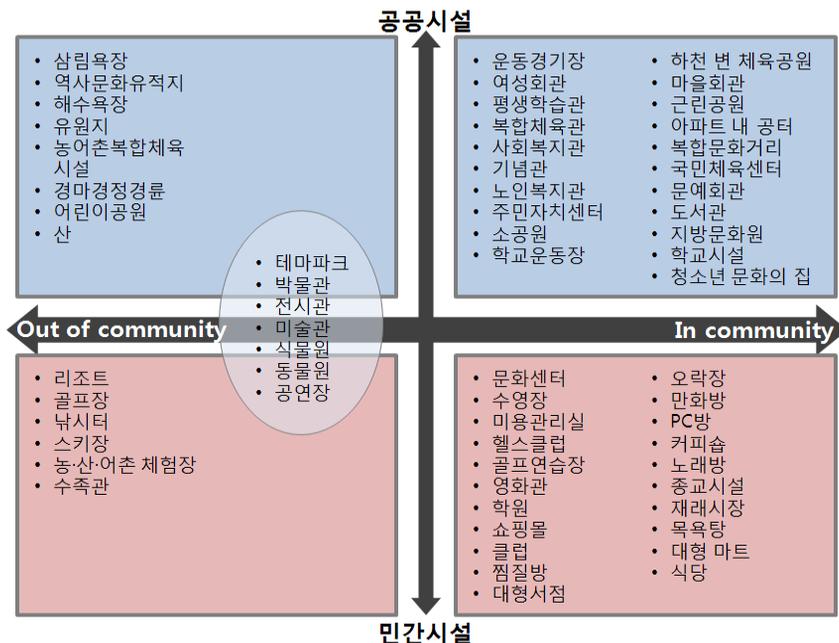
현재 동호회 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들(18.3%)은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베이비 부머들(10.4%)에 비해 동호회 활동 공간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동호회 참여 및 확대를 위한 정보에서는 동호회 참여 응답자가 19.7%, 동호회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는 23.5%로 조사되었다.

III. 여가기관 및 시설

1. 여가기관 및 시설 유형(공공영역 vs. 민간영역 /지역사회 안 vs 지역 사회 밖)

여가기관 및 시설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현황 및 실태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및 기관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여가시설과 민간영역의 여가시설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구역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여가시설/기관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지, 지역사회 밖에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여가시설유형 구분(민간영역 vs. 공공영역 & out-of-community vs. in-community)

〈그림 2〉는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제시한 여가시설들을 바탕으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인지에 따라 한 축을 구축하였고, 시설들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밖에 있는지에 따라 나머지 한 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면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여가시설들은 운동경기장,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공공 여가시설이 있으며, 민간시설이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가시설로는 문화센터, 수영장, 미용관리실,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영화관 등 많은 시설들이 있다. 한편, 공공시설이면서 지역사회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여가시설로는 삼림욕장, 역사문화유적지, 해수욕장, 유원지 외 다수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면서 지역사회와 떨어진 곳에 있는 여가시설로는 리조트, 골프장, 낚시터, 스키장, 농어촌 체험관, 수족관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매우 임의적인 작업으로 특정 여가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로 운영되기도 하며, 혹은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 운영되기도 한다. 특히 테마파크,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식물원, 공연장 등은 민·관시설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은 여가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표 39〉 세대별 시설 분류에 따른 이용여가기관(시설) 및 희망여가기관(시설)

구분	베이비부머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이용	희망	이용	희망	이용	희망
공공시설	582(37.0)	611(38.8)	490(46.7)	490(46.7)	1,117(58.7)	995(52.3)
민간시설	939(59.6)	762(48.4)	536(51.0)	434(41.3)	730(38.4)	683(35.9)
민관시설	20(1.3)	175(11.1)	10(1.0)	107(10.2)	19(1.0)	201(10.6)
기타	34(2.2)	27(1.7)	14(1.3)	19(1.8)	36(1.9)	23(1.2)
Total	1,575(100.0)	1,575(100.0)	1,050(100.0)	1,050(100.0)	1,902(100.0)	1,902(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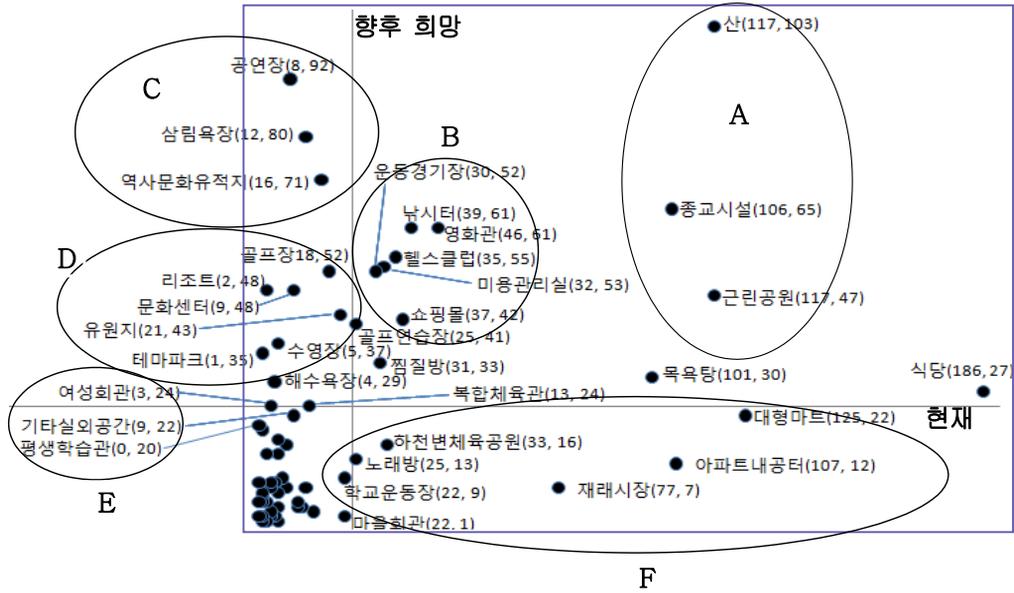
베이비 부머들 여가시설로 공공시설(38.8%)보다는 민간시설(48.4%)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용하는 여가시설은 물론 향후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여가시설에서도 민간시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예비노인세대는 현재 이용여가시설은 민간시설이 조

금 더 많지만, 향후에는 민간시설(41.3%)보다 공공시설(46.7%)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세대의 경우는 현재에도 공공여가시설(58.7%)을 더 많이 이용하지만, 향후에도 공공여가시설(52.3%)을 민간여가시설보다 더 많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민관시설에 대한 이용도와 향후 희망정도는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 현재 이용 및 희망 이용에 따른 여가기관 및 시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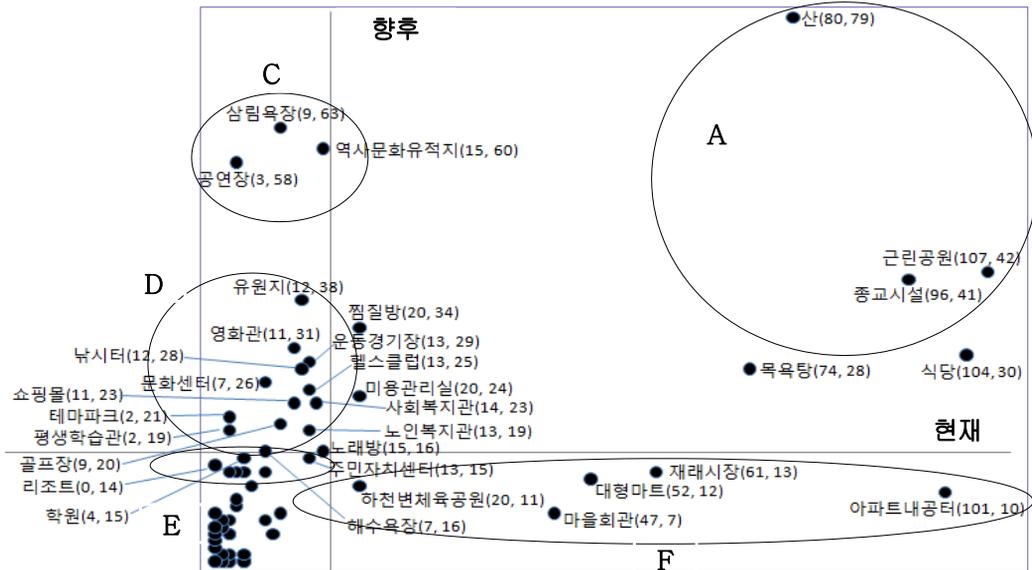
현재 이용하는 여가시설과 향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여가시설에 대한 응답자의 빈도를 토대로 하여 각 각의 평균 빈도를 X축과 Y축의 교차점으로 하여 두 축을 교차시키고, 여가시설들을 해당 빈도 점수에 맞게 위치 설정을 하였다. 현재 이용 여가시설과 희망 여가시설 모두 평균 23.8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기법은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으로 X축과 Y축을 교차시켜 나타나는 4사분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그림 3>의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 분면(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여가시설들은 현재 이용하는 것도 평균 이상이며, 향후 희망하는 여가시설로도 평균 이상인 시설이다. 왼쪽 상단 분면(2사분면)은 현재에는 평균 이하의 이용실적을 보이지만, 향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평균 이상의 빈도를 보인 시설이 된다. 왼쪽 하단 분면(3사분면)은 현재에도 이용 빈도가 평균이하이며,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도 평균 이하인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 분면(4사분면)은 현재 이용은 평균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은 평균 이하인 시설이 된다.

베이비부머의 여가 공간 이용·희망 IPA



〈그림 3〉 베이비 부머 세대의 현재 이용 및 희망이용 여가시설에 따른 IPA분석

예비노인세대의 여가 공간 이용·희망 IPA



〈그림 4〉 예비노인 세대의 현재 이용 및 희망이용 여가시설에 따른 IPA분석

〈그림 3〉을 보면, 그래프 상에서 원형으로 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각 A부터 F까지 영역 표시가 되어 있다. A영역의 여가시설은 현재 이용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동시에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도 매우 높은 여가시설이다. A영역에는 산, 종교시설, 근린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B영역은 현재 이용 빈도가 평균 이상이라는 하지만, 매우 높지는 않지만 희망 이용 빈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여가시설들이다. 낚시터, 영화관, 헬스클럽, 미용관리실, 운동경기장, 쇼핑몰 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 C영역은 현재 이용 빈도는 평균에서 약간 밑도는 수준이지만, 희망 이용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공연장, 삼림욕장, 역사문화유적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D영역은 평균 이하의 현재 이용 빈도를 보이지만, 희망 이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시설로서 골프장, 리조트, 문화센터, 유원지, 테마파크, 수영장 해수욕장 등 주로 민간여가시설들이 있다. E영역은 평균 이하의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를 보이지만, 희망 이용빈도가 평균빈도에 가까운 시설로서 향후 '잠재적 여가시설'로서 주목할 만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복합체육관 등 공공여가시설이 있다. F영역은 현재 이용빈도는 평균 이상이지만 희망 이용 빈도가 평균 이하로 나타난 여가시설로서 점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관심을 잃어가는 여가시설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형마트, 아파트내 공터, 재래시장 등은 현재의 높은 이용빈도에 비해 희망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가시설이다.

전반적으로 A, B, C, D영역에 위치한 여가시설들은 희망 이용빈도가 평균 이상인 여가시설로서 베이비 부머의 여가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여가시설들이며, 이들을 보다 세분화 해 보면,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가 모두 높은 A 및 B 영역은 여가활동의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전략이 없어도 높은 이용빈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환경을 통해서 여가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C와 D영역은 높은 관심에 비해 현재 이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연장의 경우, 지리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지역사회 내의 공연시설을 구축하고, 여가활동의 주요 불만족 이유가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E영역은 통계적 수치로는 아직 미미하지만, 향후 가능성을 보이는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은 평생학습과 취미·오락활동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높은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표적화(targeting)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F영역에서 아파트내 공터나 재래시장, 하천변 체육공원등은 현재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향후 희망 이용빈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총체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베이비 부머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여가시설들에 대한 대응전략은 또 하나의 방대한 연구영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편, 예비노인 세대의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에 따른 IPA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B영역의 시설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치상으로 비슷한 영역에 있지만, 해당되는 여가시설들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A와 C영역의 여가시설은 두 집단이 일치하고 있지만, D영역에서는 평생학습관이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공공여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E영역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경우 D영역에 속해 있었던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베이비 부머들에게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예비노인세대들에게는 민간여가시설 보다는 지역사회 내 공공여가시설(복지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이 잠재적인 여가시설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이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이 지역사회 공공여가시설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적으로도 이러한 시설들이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IV.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여가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의 방향성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여가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가관련 특성, 여가활동의 실태분석, 그리고 여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1. 여가문화참여 욕구에 기반한 대응전략

베이비 부머들의 세부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TV시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 그리고 낮잠, 등산,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쇼핑 및 외식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표 17 참고). 현재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을 여가활동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관광활동 등은 현재 여가활동은 매우 미미하지만, 희망 여가활동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20 참고).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유형에서는 현재에는 단순히 영화관람에서 연예공연관람, 연극관람, 전시회관람, 음악연주회관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관람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여가활동에 비해 희망 여가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형은 관광활동이다. 현재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관광활동으로 해외여행, 삼림욕장, 온천/해수욕장, 국내캠핑, 문화유적지방문, 자연명승지 및 풍경 방문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비 부머들의 여가문화참여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욕구수준이 높은 여가활동 영역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대상의 세분화를 통한 대응전략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이외

에도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및 휴일)과 여가비용에서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은 적지만 휴일 여가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표 4와 5 참고), 여성이 남성보다 평일 여가시간은 많지만 휴일 여가시간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고). 여가비용에서도 남자가 여성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표 8 참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여가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고).

또한, 여가의 목적에 있어서는 남성들은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높으며,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여가목적들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과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 여가의 주요목적인 반면에 스트레스 해소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표 10 참고).

특히,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영역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전시회관람, 박물관관람, 전통예술관람 등 관람에 관심이 높으며, 사진촬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여성은 음악연주회 관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에서는 남자는 사이클링/산악자전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여성들은 요가/필라테스/태보, 댄스스포츠를 하고 싶어했다. 취미·오락활동에서는 남성은 낚시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성은 미용, 어학/기술 자격증 등 학습활동, 그리고 요리하기/다도 등 다양한 영역의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했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서는 남성은 친구만남/동호회 활동을 선호했지만, 여성은 종교활동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표 21 참고).

여가생활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혼합형 여가패턴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혼합형 여가패턴의 비율이 높아 보다 다양한 유형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7 참고).

이와 같이 대상별로 여가시간활용, 여가비용, 여가목적, 여가활동 유형, 여가패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세분화하여 적절한 홍보전략과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전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여가활성화 방안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게 될 경우, 직장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생활기반을 전화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적응여부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소속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역사회, 학교(동문, 동창), 직장, 종교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예비노인 세대와 노인세대를 비교해 볼 때, 직장소속의 동호회와 학교 소속 동호회는 감소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와 종교단체의 동호회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표 37 참고). 특히 지역사회 소속의 동호회 비율은 세대와는 무관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세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 이후 지역사회 적응은 노년기 여가활동은 물론 삶의 질에서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시설에 대한 현재 이용 및 희망 이용빈도를 활용한 IPA 결과를 보면(그림 3과 4 참고), 지역사회 내 여가시설로 종교시설과 근린공원이 가장 현재 이용빈도와 희망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용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향후 희망 이용빈도에서 주목할 만한 시설로는 여성회관과 평생학습관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예비노인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여성회관 이외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여가인식의 강화

SOC Model에 의하며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주로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선택(selection)과 최적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완/보상(compensation)의 과정을 거쳐서 중장년기 때의 상태로 복원(resilience)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성공적 노화’라고 말한다. 이때 선택에는 선별적 선택(elective selection)과 상실에 의한 선택(loss-based selection)이 있는데, 은퇴(직업의 상실)나 건강악화(건강의 상실) 등 상실에 의한 선택보다는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선별적 선택은 상대적으로 인식의 정도 약하다. 즉, 노후설계에서도 재무관리나 건강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이후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일 중심의 생활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한국 사회의 베이비 부머들에게는 일을 위한 휴식이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이른바 ‘여가투성이’이기 때문에 노년기의 삶의 질이 곧 여가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와 예비노인 세대, 그리고 노인세대의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22와 23 참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여가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꿈꾸고 있는 희망 여가생활을 여전히 은퇴 이후에도 꿈꾸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베이비 부머들에게 은퇴 이후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 및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실천의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가생활을 홍보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5. 여가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접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가시간 자체보다는 여가시간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인식이었던 반면에, 여가비용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여가비용과 더불어 사용한 여가비용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0 참고). 다시 말하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여가비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0〉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 인	β 값
사회인구학적 요인	
연령	-.039
교육수준	-.016
소득수준	-.077
배우자유무	-.050
여가관련 요인	
평일여가시간	-.056
휴일여가시간	.003
여가시간만족도	.153**
여가비용	-.111**
여가비용만족도	.329***
여가패턴(여가활동 다양성)	-.020
참여여가활동 빈도	.034
동호회참여 여부	.103*
F값	16.506***
R ² 값	.279

또한, 여가 불만족 이유에서도 베이비 부모들은 시간부족(41.6%)보다도 경제적 부담(53.8%)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3 참고). 소득수준 '상'의 경우 월평균 여가비용이 약 27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11만2천원보다 약 15만원을 여가비용으로 더 소비하고 있었다. 희망여가비용에서도 전반적으로 현재 여가비용보다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더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고).

베이비 부버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가의 비용측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

발표문 2

권중돈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현 세대 노인의 생활문제 해결과 욕구충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2011년도 중앙정부 노인복지예산의 88.5%가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투입(보건복지부, 2011a)될 정도로 노인복지제도는 소득과 건강보장 체계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음
- 따라서 노후 여가생활이나 사회참여 촉진 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노후 여가 및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또한 매우 미진한 상황임
- 특히 노인 여가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과 지원이 지방정부에 위임됨으로써, 정확한 운영상황이나 서비스 이용 실태 조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대표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1989년 서울특별시에 2개소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어, 2011년 현재 25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노인 수는 15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노인복지관 운영 및 서비스 이용 실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더욱이 현재 노인복지관은 현 세대 노인을 위한 여가서비스 등의 제공에도 인력 및 재정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업무 부담이 과중하므로, 미래 노인세대인 베이비 부머를 위한 여가서비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역량과 여력에 한계가 있음

□ 하지만 노인 여가서비스 정책과 연구, 노인복지관 운영과 서비스의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712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라 노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재정립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세대인 베이비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이에 다음에서는 현재 노인복지관의 운영, 기능과 역할을 개괄적으로 고찰한 후,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서비스 현황

□ 노인복지관은 1989년 최초로 서울특별시에 2개소가 설치·운영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되어 2011년 3월 현재 25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1. 3.)

○ 전국적으로 시군구당 평균 1.12개, 서울과 광역시는 1.29개소, 도 지역은 1.04개소(경기도 제외시 0.92개소)가 설치 운영 중임

○ 전체 노인복지관 중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55.6%가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은 시군구별로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음

- 노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이 시(市)나 구(區)보다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郡)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근거로 해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인복지관 건축 및 지원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표 1 〉 시도별 노인복지관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계	
시군구(A)	230	25	16	8	10	5	5	5	74	
노인복지관(B)	259	31	16	10	15	10	6	8	96	
B-A	29	6	0	2	5	5	1	3	2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시군구(A)	31	18	12	16	14	22	23	18	2	156
노인복지관(B)	48	9	16	13	20	26	13	16	2	163
B-A	17	-9	4	-3	6	4	-10	-2	0	7

* 자료: 보건복지부(2011. 3.).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전국의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략 150만명 정도로 추정(한국노인복지관협회, 2011)되고 있음

□ 다만, 2007년 92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건복지부, 한국노인종합복지관, 2007)에 의하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이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의 노인복지관에 비해, 시설·재정·인력의 규모가 크고, 등록 및 이용 회원이 상대적으로 많음

〈 표 2 〉 지역별 등록인원 및 연평균 실 이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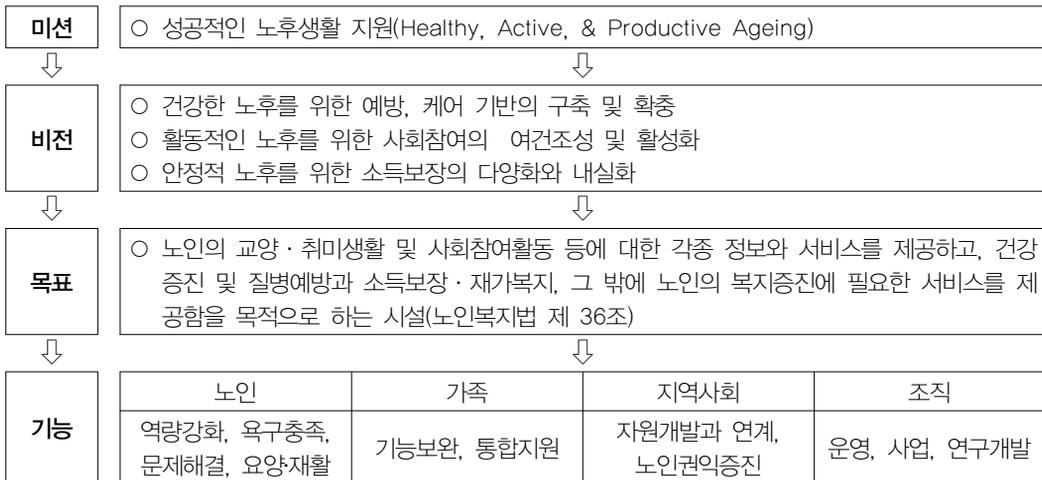
구 분		전 국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 농촌지역
등록인원	1,000명 미만	11.4	13.2	4.8	13.8
	1,000-3000명 미만	37.5	21.1	47.6	51.7
	3,000명 이상	65.8	47.6	34.5	51.1
연평균 이용인원	1,000명 미만	42.7	31.3	44.4	56.0
	1,000-3000명 미만	34.7	31.3	38.9	36.0
	3,000명 이상	22.7	37.5	16.7	8.0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7).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7) 조사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득, 고용, 건강, 평생교육, 여가, 사회참여, 정서지원, 가족지원 및 통합, 노인 권익증진 등으로 그 영역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지역과 개별 노인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 질적 수준에 편차가 존재함

3.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3. 1. 노인복지관의 미션-비전-목표-기능의 관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7).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그림 1] 노인복지관 미션-비전-목표-기능의 관계

3. 2. 노인복지관의 기능

□ 노인복지관의 ‘성공적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미션과 비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업대상별로 노인복지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은 다음 <표 3>과 같음

< 표 3 > 노인복지관의 사업대상별 기능

사업대상	노인복지관의 기능
노인 서비스 기능	○ 노인의 다양한 생활영역(소득, 고용, 주거, 건강, 교육, 여가, 사회참여, 정서생활 등)에서 나타나는 욕구의 충족, 문제예방과 해결, 영양과 재활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성공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가족 서비스 기능	○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을 지지, 보완 또는 대체하고, 부양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며, 가족성원간의 통합과 정서적 결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기능	○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 동원하고, 노인보건복지 기관 및 시설과의 유기적 사업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고 있는 지역 노인복지체계를 구축
조직 관리운영 기능	○ 노인과 가족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고, 지역 노인복지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

*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7).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관의 사업대상별 기능은 모두 17개이며,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서비스와의 관계는 다음 <표 4>와 같음

< 표 4 > 노인복지관의 사업대상-기능-서비스의 관계

대상	기능	세부 기능 및 서비스
노인 서비스 기능	1. 평생교육지원	○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제고하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역사교실, 예능교실(미술, 음악, 운동교실 등), 전통문화교실 등
	2. 취미여가지원	○ 노인이 취미생활과 여가문화생활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음악활동(노래교실, 민요·풍물교실, 합창반, 댄스교실, 한국무용 등), 미술(회화, 공예, 조각, 풍선아트 등), 원예교실, 다도교실, 문화교실(연극 등), 레크레이션, 운동(당구, 탁구, 포켓볼 등), 바둑장기 등

대상	기능	세부 기능 및 서비스
	3.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생활 적응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취업(구인, 구직)상담, 취업자 사후관리, 고려자취업알선센터,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은퇴준비교육 등
	4.소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최저수준 이상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결연 및 후원사업, 은퇴후 경제생활 적응, 노후가계운용 교육,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수급 등
	5.건강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와 증진, 기능회복 및 요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이미용, 목욕, 세탁서비스 등 ○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밀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 기능회복지원: 양한방진료, 재활문제해결(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훈련 등) ○ 요양지원서비스: 치매중풍환자 프로그램, 주간야간단기보호, 그룹홈, 장제서비스 등
노인 서비스 기능	6.정서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접수이용상담, 생활상담, 복지정보상담, 전문상담(법률상담, 주택상담, 연금상담, 보건의료상담, 세금상담 등),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종교행사, 죽음준비교육 등
	7.사회참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사회발전 기여 욕구와 사회통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원봉사활동, 지역 동아리클럽 활동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8. 경로당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회원의 역량강화를 지원 ○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임원리더십 강화사업, 경로당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9.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제한된 기능을 보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성과 편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가족 서비스 기능	10.가족기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노인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보호부양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부양가족 교육, 노인그룹홈,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품 대여, 노인돌봄비마우처, 노노케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11.가족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가족성원간의 세대통합을 지원 ○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대상	기능	세부 기능 및 서비스
지역 사회 서비스 기능	12.지역자원개발	○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 동원, 관리하여 지역노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수탁 사업 등
	13.지역복지연계	○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노인보건복지 관련 단체, 기관, 시설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과 가족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마을잔치, 나들이등) 등
	14.노인권익증진	○ 다양한 노인 권익 옹호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내의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노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노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학대예방)사업,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조직 관리 운영 기능	15. 운영관리	○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인사관리, 재정관리, 시설관리 체계의 구축 ○ 인사관리, 재정관리, 시설관리 등
	16. 사업관리	○ 노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체계적 관리체계의 구축 ○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실행, 점검, 평가, 보완 등
	17. 연구개발	○ 노인복지 정책개발,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지역노인복지 네트워크의 구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제도와 노인 복지전문직 발전에 기여 ○ 사업기획, 조사연구, 실습지도, 출판, 홍보, 자문(운영)위원회 등

* 보건복지부(201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 베이비 붐 세대와 현 노인세대의 노후 여가생활 비교 및 예측

□ 노인복지관이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를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 노인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 여가, 평생교육, 사회참여 뿐 아니라 소득, 건강, 주택, 가족 등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태도와 생활실태를 비교하여야만 함

□ 하지만 다음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경제활동, 여가, 평생교육, 사회참여라는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만 베이비붐 세대와 현 노인 세대의 이용 및 참여 실태를 비교해 보

고, 베이비 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거칠기는 하지만 미리 예측’해 보고자 함

4. 1.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비교와 예측

- 한국노동패널 데이터(1998-2008)와 전국노인실태조사(1994-2008)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취업률 또는 경제활동 참여율을 비교분석한 바에 의하면, 베이비 부모, 예비노년층 그리고 노인층 모두에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함
 - 베이비부모의 취업률은 1998년 63.5%에서 2008년 74.9%, 예비노년층(55-64세)은 47.2%에서 56.1%로 증가함(이소정 외, 2010a)
 -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94년 28.5%에서 2008년 30.0%로 증가함(이윤경 외, 2010)

- 2006 고령자 패널조사와 2008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근거로 노동 지속의사를 비교해 보면, 세대에 관계 없이 노동지속 의사가 강함
 - 베이비부모의 49.5%, 예비노년층의 56.9%가 지속적으로 노동을 할 의향을 지니고 있음(이소정 외, 2010)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90.1%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 중에서는 32.2%가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가족부, 2009)

-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해볼 때, 베이비부모 세대는 노년기에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현 세대 노인보다 높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함

- 또한 현세대 노인이 1차 산업 종사자가 많았던 반면 베이비 부모와 예비노년층의 경우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등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현재와는 다른 형태의 노인 일자리사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4. 2. 여가활동에 관한 비교와 예측

□ 노년학 연구에서 여가에 관한 연구가 적을 뿐 아니라, 노년기의 여가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서로 다른 유형분류체계를 근거로 이루어진 관계로 세대 간의 여가활동 참여 욕구나 유형의 비교에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베이비부머의 연령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여가유형 분류틀에 입각하여 여가활동 실태를 분석한 국민여가활동 조사(문화관광체육부, 2010)를 근거로 세대 간 비교분석을 하고자 함

□ 여가활동 목적을 비교한 <표 5>를 보면, 40대는 마음의 안정과 휴식, 대인관계 및 교제, 건강의 순인 반면 50대는 개인의 즐거움, 건강, 대인관계 및 교제, 60대는 개인의 즐거움,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그리고 70대 이상은 개인의 즐거움, 시간보내기, 건강의 순으로 나타나, 세대 간 차이를 보여,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할 경우에도 개인적 즐거움 추구, 건강 유지 및 향상, 휴식과 소일을 목적으로 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율을 <표 6>에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표 5 〉 고령자의 여가활동 참여 목적

(단위: %)

여가활동의 목적	전연령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개인의 즐거움	16.7	16.8	23.1	39.4	33.7
건강	24.6	20.4	20.6	14.8	17.1
마음의 안정과 휴식	18.1	23.7	18.3	17.5	14.7
스트레스 해소	7.4	10.8	7.0	5.8	3.7
대인관계 및 교체	21.4	20.7	19.3	7.1	4.2
자기계발	2.1	1.0	2.2	2.8	0.3
자기만족	4.2	3.9	3.8	2.1	4.0
시간보내기	5.1	2.1	5.5	10.5	22.2
기타	0.5	0.6	0.1	0.0	0.0

* 자료: 문화관광체육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 표 6 〉 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율

(단위: %)

여가활동 유형	전연령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문화예술 관람활동	6.0	5.6	2.7	1.2	1.1
문화예술 참여활동	1.2	1.0	1.0	1.0	0.9
스포츠 관람활동	2.2	2.4	2.3	0.7	0.9
스포츠 참여활동	7.3	9.3	7.1	6.1	3.5
관광활동	4.7	4.9	3.8	4.4	3.8
취미오락활동	25.4	26.2	24.4	18.1	13.1
휴식	36.2	35.8	39.5	46.6	51.9
사회 및 기타활동	17.1	14.8	19.3	21.9	24.8

* 자료: 문화관광체육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 고령자가 여가활동 지출비용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들고, 2/3 정도의 고령자가 여가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여가비용 부족이 여가활동의 가장 큰 불만족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표 7 참조),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여가활동 참여율과 활동유형은 여가비용 지출능력에 따라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측됨

〈 표 7 〉 고령자의 여가생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단위: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전연령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시간 부족	45.9	45.8	32.3	28.7	15.9
경제적 부담	45.6	48.5	60.3	58.2	58.1
여가정보·프로그램 부족	0.8	0.7	0.5	2.7	0.0
여가시설 부족	1.7	1.3	1.6	0.8	2.0
함께 즐길 사람 부족	2.1	2.2	3.1	1.5	6.9
자기 설계 부족	1.1	1.0	0.1	2.0	0.0
기타	2.8	0.5	2.0	6.0	17.1

* 자료: 문화관광체육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고령자가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표 8〉에서 살펴보면, 여행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령이 증가에 따라 참여 희망 비율이 증가하는 여가활동은 휴식, 사교활동, 종교활동, TV 및 비디오 시청이었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향후 참여 희망 비율이 줄어드는 여가활동은 자기개발, 창작적 취미활동, 스포츠 관람 및 활동, 문화예술관람, 여행인 것으로 나타남

〈 표 8 〉 향후 희망 여가활동

(단위: %)

향후 희망 여가활동	전연령	40대	50대	60대 이상
TV 및 비디오 시청	11.1	7.9	10.6	21.7
여행	61.2	66.2	63.7	50.6
문화예술관람	22.2	21.0	14.6	6.6
스포츠 관람	7.1	8.2	6.3	2.6
스포츠 활동	20.3	26.7	17.6	6.1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 등	5.9	2.8	2.8	1.6
창작적 취미	14.5	14.5	11.8	5.6
자기개발	25.7	24.1	15.1	5.3
봉사활동	10.2	14.3	15.8	9.2
종교활동	8.6	9.7	13.1	14.6
가사활동	4.3	4.0	5.9	9.6

향후 희망 여가활동	전연령	40대	50대	60대 이상
휴식	18.4	16.6	18.9	27.3
사교활동	21.6	18.6	24.9	32.6
기타	0.5	0.4	0.3	1.5

* 자료: 통계청(2009), 사회조사.

□ 여가활동 장소는 베이비 부머인 중장년층에서부터 60대 노인까지는 실내공간의 비중은 줄고 실외공간은 늘어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현 노인세대에 비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가활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문화관광체육부, 2010)을 고려할 때, 베이비 부머가 노인이 되었을 경우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등의 다른 여가문화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등 여가활용 장소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현 노인세대보다는 노인복지관의 여가서비스 이용 시작연령이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 베이비부머의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 의식은 경제나 건강 영역의 노후준비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준비도 또한 낮게 나타나지만(이소정 외, 2010b)이지만, 베이비부머의 경우 여가에 대한 예비사회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여가활동이 노후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정경희 외, 2010)을 근거로 해볼 때, 현세대 노인보다는 여가참여율이 높고 여가활동 유형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같은 베이비 붐 세대 내에서도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 여가 예비사회화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여가참여율과 여가활동 유형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측됨

4. 3. 평생교육에 관한 비교와 예측

□ 베이비 부머의 경우 현 세대 노인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노년기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지역 문화센터 등의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이 확대 설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여 평생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선불리 전망하기 어려움

□ 다만, 현 세대 노인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접근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베이비 부머의 경우에는 접근도, 강사의 질, 교육기관의 수준과 질, 교육비용 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평생교육 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정경희 외, 2010)이 농후한 것으로 보여, 노인복지관이 시설 접근도 뿐 아니라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베이비 붐 세대 노인으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이 내재함

〈 표 9 〉 평생교육 실시기관의 중요한 조건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전기 베이비붐 세대	후기 베이비붐 세대
접근성	76.9	76.2	77.3
비용	86.9	87.2	86.6
강사의 질	93.6	93.2	94.2
교육기관의 수준과 질	89.4	89.0	89.8
기타	35.3	41.6	16.1

* 평생교육 기관의 조건으로 ‘매우 중요함’ 또는 ‘중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 자료: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4. 사회참여에 관한 비교

- 사회참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는 현세대 노인에 비하여 사회참여 의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지만 베이비부머 중에서 정치사회단체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2% 미만이며 노년기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여 베이비부머의 적극적인 사회단체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적절치 않음
- 베이비 부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 노인세대보다는 참여율이 높고,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을 지닌 비율이 44% 정도(정경희 외, 2010)인 것으로 나타남

〈 표 10 〉 연도·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연령	1991년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전체 인구	5.4	13.0	14.6	14.3	19.3
40-49세	7.9	13.0	14.2	13.9	18.6
50-59세	6.1	10.8	12.2	12.4	15.5
60세 이상	3.8	6.7	6.7	6.5	7.0

* 자료: 통계청(1991-2009), 사회조사.

-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였을 때 현재 보다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노인 자원봉사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노년기의 건강과 소득 수준이 약화될 경우 베이비 부머 역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선부른 예측은 오류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5.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모색

5. 1. 노인복지관의 위상과 성격 변화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복지관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07)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표 11 〉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지각하는 노인복지관의 위상과 성격

(단위:%)

위상과 성격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종합서비스 기관	49.4	50.2	52.9	48.5	35.0
특화 서비스 기관	32.8	31.6	33.1	32.0	40.0
지역 거점서비스기관	16.4	17.2	11.8	17.5	25.0
기타	1.5	1.0	2.2	2.1	-
계 (명)	100.0 (482)	100.0 (209)	100.0 (136)	100.0 (97)	100.0 (40)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7).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일반적으로 60세)에 도달하는 기간이 4~12년 정도라는 점과 이 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부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급격히 확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해볼 때,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여도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유지할 개연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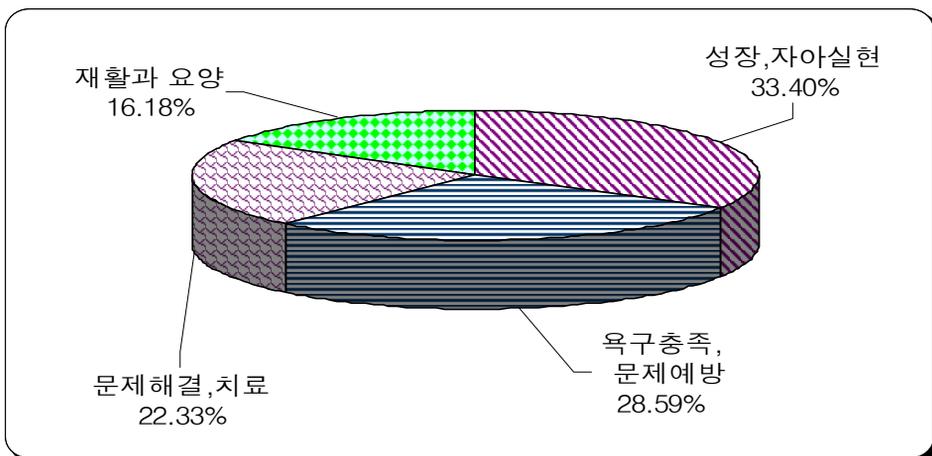
□ 지역별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특정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특화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거점서비스 기관 또는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예에서 보듯이 노인문화센터 등이 설립될 경우 노인복지관이 현재 위상과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많은 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노인복지관은 다시 한번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5. 2. 노인복지관의 목적 변화

□ 노인복지관 관리자와 종사자는 현재 노인복지관의 목적을 1차적 수준의 예방(노인의 성장과 자아실현 지원, 욕구충족 및 문제의 예방)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지만, 2차적 수준의 예방(문제해결 및 치료), 그리고 3차적 수준의 예방(재활과 요양) 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07)

□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인문제 발생의 예방 기능이 노인복지관의 핵심 목적이긴 하지만, 문제해결과 사후 개입 역시 노인복지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7).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그림 2]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지각하는 노인복지관의 목적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재활과 요양 기능을 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복지관이 재활과 요양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1차적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노인복지시설의 증설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지역 특히 농어촌이나 소도시 지역의 경우 예방과 사후개입, 요양이라는 3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로 진입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크게 변화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5. 3. 노인복지관의 기능 변화

□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노인복지관의 주요 기능을 건강생활, 취미여가, 고용,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이라고 보고 있음

< 표 12 >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지각하는 노인복지관의 현재 기능

노인복지관 기능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노인 서비스 기능	소득지원기능	346	7	149	8	116	5	61	7	20	9
	고용지원기능	829	3	348	3	258	2	160	3	63	3
	주거지원기능	69	15	20	16	27	15	11	15	11	11
	건강생활지원기능	1397	1	567	1	422	1	300	1	108	1
	평생교육지원기능	657	4	293	4	155	4	154	4	55	4
	취미여가지원기능	916	2	393	2	246	3	203	2	74	2
	사회참여지원기능	470	5	280	5	97	7	56	9	37	6
	정서생활지원기능	282	9	128	9	70	10	58	8	26	7

노인복지관 기능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족 서비스 기능	가족기능지원기능	439	6	203	6	103	6	112	5	21	8
	가족통합지원기능	180	14	71	13	55	12	44	12	10	14
지역 사회 서비스 기능	지역자원개발기능	310	8	174	7	68	11	54	10	14	10
	지역복지연계기능	266	10	108	11	53	14	66	6	39	5
	노인권익증진기능	209	11	121	10	55	13	22	14	11	12
조직 관리 운영 기능	운영관리기능	209	12	85	12	73	9	40	13	11	13
	사업관리기능	199	13	60	14	84	8	47	11	8	15
	연구개발기능	57	16	25	15	23	16	7	16	2	16

* 순위=‘{(1순위×5점)+(2순위× 4점)+(3순위× 3점)+(4순위×2점)+(5순위×1점)}’로 산출한 점수가 높은 순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7).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강화해야 할 노인복지관의 기능으로 고용지원기능, 건강생활지원기능, 가족기능지원기능, 노인권익증진 기능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하향 조정해야 할 기능으로는 평생교육지원기능, 지역 복지연계기능 등으로 보고 있음

< 표 13 >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지각하는 향후 노인복지관 기능 조정 방안

노인복지관 기능		현재 기능 순위	향후 중점 기능순위	향후 기능강화 수준
노인 서비스 기능	소득지원기능	7	7	현재 유지
	고용지원기능	5	3	상향 조정
	주거지원기능	14	15	현재 유지
	건강생활지원기능	3	1	상향 조정
	평생교육지원기능	2	4	하향 조정
	취미여가지원기능	1	2	현재 유지
	사회참여지원기능	4	5	현재 유지
가족 서비스 기능	정서생활지원기능	8	9	현재 유지
	가족기능지원기능	12	6	상향 조정
지역사회	가족통합지원기능	15	14	현재 유지
	지역자원개발기능	9	8	현재 유지

노인복지관 기능		현재 기능 순위	향후 중점 기능순위	향후 기능강화 수준
서비스 기능	지역복지연계기능	6	10	하향 조정
	노인권익증진기능	13	11	상향 조정
조직 관리 운영 기능	운영관리기능	10	12	하향 조정
	사업관리기능	11	13	하향 조정
	연구개발기능	16	16	현재 유지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7).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위 조사결과와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베이비부머와 노인세대의 고용지원, 건강생활지원(특히 예방적 기능)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현재 중심적 기능인 취미여가지원이나 사회참여지원 기능을 유지하고,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생교육지원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가족기능지원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농어촌이나 소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적절하다고 하기 어려움

5. 4. 노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변화를 위한 고려사항

5. 4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고령친화사업의 발전

□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서 베이비 부머가 지닌 특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전체 노인복지시설의 수와 서비스 종류가 차이가 날 것이므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듯함

□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고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특

성화'를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적은 농어촌이나 소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종합·다기능화'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이와 아울러 고령친화산업 특히 여가, 교육, 건강 분야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노인복지관은 민간 여가·교육·건강서비스 기관과의 생존 및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현 세대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서비스의 전문화, 고급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5. 4. 2. 연령서열형 사회의 특징

- 중장년층 이상의 국민에게는 우리 사회가 연령서열형 사회라는 특징이 강하다는 의식이 존재하며, 베이비 붐세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런 의식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임

- 이러한 점과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이비 붐 노인세대와 현 노인세대간에 제한된 노인복지관 서비스 자원 이용에 관한 권력 다툼(power struggle)에서 일어날 경우, 연령에 따른 서열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적으로 다수가 되기까지 베이비붐 세대 노인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노인복지관에서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어려울 것임

- 반면 노인복지관은 잠재적 소비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에 걸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시도하려 해도, 인력과 재정의 한계, 현 노인 세대의 서비스 요구 수용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베이비붐 노인세대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한계를 보일 것임

- 따라서 노인복지관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노력이 미비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낮아지고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됨

5. 4. 3. 베이비붐 세대에도 존재할 양극화 현상

□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 노인 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한 예측은 ‘매우 거친 예상’에 불과함

□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할 경우에도 현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소득, 주거, 건강, 여가 등의 전반적 생활영역에서 분명 세대내 양극화 현상이 존재할 것임

□ 그러므로 노인복지관은 현 노인세대와 베이비붐 노인세대간의 양극화, 베이비붐 세대내의 양극화 등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관의 역량을 고려할 때 이 모든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 시행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노인복지관이 현재와 같이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서비스 영역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 즉, 고용, 여가, 건강, 평생교육, 가족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 중에서 특정 영역에 집중하는 ‘서비스 특성화하고 고급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4. 4. 다른 노인복지시설과의 역할 조정과 분담

□ 공적 조직을 이용하는 베이비부머가 여가활동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소정 외, 2010a) 그리고 현 세대 노인보다 정보력에서

앞서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볼 때, 베이비붐 노인 세대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공적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됨

-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건강생활지원과 가족기능지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과, 고용지원기능의 경우 다른 고용지원기관과, 노인권익증진기능의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그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어 있어, 시설간 기능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베이비붐 노인세대에게 있어서도 서비스 접근도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공적 노인복지시설뿐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민간 부문의 여가 및 평생교육 기관들이 확대 설치되고 서비스의 차별화와 고급화 전략을 사용할 경우 노인복지관은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와 다른 노인복지시설과의 역할 조정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응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나오는 글

-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베이비 부머의 노화로 인해 나타날 현상에 대한 예측은 '최소의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한 단순한 예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더하여 노인복지관은 법적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능 노인복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노인복지

관 서비스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미흡한 상황임

-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이상에서 논의한 베이비 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예측은 모두 빗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함
- 다만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부머의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노인 복지관의 주요 목적은 1차적 예방이며, 현 세대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건강생활, 취미여가, 고용,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이 핵심적 기능이 될 것이라는 점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하여 서비스의 특성화와 고급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능 및 역할 변화를 위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연령서열형 사회의 특성,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양극화 현상, 다른 노인복지시설과의 역할 분담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도 전국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1).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1. 3.).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7).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이소정 외(2010a). 신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 이소정 외(2010b).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이윤경 외(2010). 한국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 정경의 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11). 내부 자료.

토 론 문

-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호경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회장)
- 조동기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미래학자)



베이비부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욕구 및 노인복지관의 역할변화 관련 토론문

토론문 1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른 세대와 다른가?

□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부터 산아제한 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뜨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의 세대를 지칭. 즉 1955년~1963년 사이 출생 인구
- 전통과 혁신이라는 양면적 가치관을 소유한 “깁 세대”, “샌드위치 세대”
-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대기업 일반 정년 연령인 만55세 도달) 2010년부터 은퇴에 대한 논의가 활발. 준비없는 은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문제와 기존 노인층에 비해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 기대 공존
- Active Senior, The New Age, New Senior 등 기존노인과 차별화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갖춘 새로운 세대로 강조

□ 기존 노인세대나 다른 젊은 세대와 차별되게 구분되는가?

- 경제성장의 주역인 산업일꾼으로 불리면서 열심히 일한 베이비부머들의 노동시간은 40~50대나 55세~60세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높게 나타남
 - 일주일 평균노동시간 40~45세 49.6시간, 46~54세 49.9시간, 55세~60세 48.3

시간(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결과)

- 문화예술 활동이나 여가문화 활동의 체험도 전연령층 보다 낮게 나타남
 - 1년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2009년 베이비부머 연령층의 47.8%로, 전연령층의 55%보다 낮음(통계청, 2009. 사회조사)
 - 전연령층 평균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율 55%(공연장 이용 89.5%, 음악 연주회 26.1%, 연극 및 뮤지컬 26.2%, 영화 91%, 전시장 이용 32.5%, 스포츠 관람 20.5%)
 - 베이비부머 평균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율 47.8%(공연장 이용 86.0%, 음악 연주회 32.8%, 연극 및 뮤지컬 25.2%, 영화 86.9%, 전시장 이용 31.0%, 스포츠 관람 21.6%)

□ 전반적인 일중심 사회에서 여가문화활동의 참여활동과 내용의 차이가 뚜렷한가?

-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활동 전반적 특징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문화활동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 평균 여가시간 전체 평일평균 4.0시간, 휴일 평균 7.0시간/ 베이비부머 세대 평일 평균 3.58시간, 휴일 평균 6.56시간
 - 희망여가시간 전체 평일평균 5.1시간, 휴일 평균 8.5시간/ 베이비부머 세대 평일 4.93시간, 휴일 평균 8.17시간
-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시간과 희망여가시간의 차이 존재(이금룡 교수 발제문 참조)
 - 세대나 연령의 차이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닌가?
 -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도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 여가예비사회화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여가참여율과 여가활동 유형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측됨'(권중돈 교수 발제문 참조)으로 설명가능한가?

- 베이비부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특히 여가문화활동의 특징)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 전 연령 또는 전 세대 평균과 각 세대의 차이 분석을 통해 각 세대별 특징 분석이 필요함
 - 각 세대나 연령의 성장과정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요구됨
 - 단순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도 다른 자료나 실증적 증거들로 입증 타당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함
 - 연령이나 세대 구분이외에 소득, 여가경력, 성 등 다른 변인들의 차이로 인한 특징은 아닌가에 대한 비교 검토 필요함

2.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문화활동에서의 새로운 변화 인지

-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문화 활동이 현재 차이가 없는데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가?
 -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여가활동이 여전히 소득적, 수동적, 실내지향적 특징을 나타내며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매우 미비하게 감지되고 있음
 - 물론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 여가시간의 증가나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해 아웃도어 레포츠 및 야외 활동 증가, 캠핑장 수 증가와 캠핑족 급증, 취미여가활동 관련 동호회 수 증가, UCC활동이나 컨슈머 창작 활동 증가, 일-삶의 균형 지향성 등의 변화가 존재함
 -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기 보다 소득이나 연령 등 특정 계층에 따라 상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대적 경험과 현재의 노동중심적 사고와 생활속에서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새로운 변화나 기회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 변화에 대한 증거는 시장(market)에서 나타나는 일부의 움직임으로 감지됨
 - 감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 뉴시니어 세대의 3대 키워드(9젊음, 향수, 자아) (SERI 경영노트, 2011.3.24)
 - 2011년 베이비부머의 추억을 자극하는 해외 거장들 내한공연 성행(에릭 클랩튼, 산타나, 이글스 등)
 - 영화나 연극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각광(‘민들레바람되어’ 관객 10만 돌파, ‘친정엄마’ 관객 절반은 50대 이상, ‘그대를 사랑합니다’ 관객 100만명 돌파 등)
 - MBC의 ‘세시봉’ 프로그램 편성과 통기타 열풍
 - 공연예술계와 관련 시장에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중장년 여성을 공략한 아침 공연(11시 콘서트), 평일 낮 중장년 여성을 위한 멤버십제도 ‘미즈스토리’ 운영(멀티플렉스극장 CGV)

- 이러한 변화에 대한 동력은 무엇인가?
 - 이러한 변화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지는 세대적 특성인가?
 - 베이비부머 세대는 창조적 소비자로 시장의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는가?
 - 이들이 미래 노인세대로 편입될 때, 여가문화생활이 계속 창조적일 수 있는가?
 - 이들을 새로운 창조적 고령층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3.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노인복지관이 현재 노인세대에 어떤 의미인가?
 - 노인복지관의 접근성과 관련 프로그램 분석
 -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지각하는 노인복지관의 현재 기능과 향후 기능(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자료, 권중돈교수 발제문 참조)과 구별되는, 현

재 노인들이 인지하는 노인복지관의 성격과 접근성에 대한 연구 필요

○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과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특성 비교

□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여도 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유지할 개연성 높다’(권중돈 교수 발제문)는 예측에서, 노인복지관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 권중돈 교수는 발제문에서 고용지원, 건강생활지원(예방적 기능)을 상향조정하는 안,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 개발하여 문화센터나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하는 안 등을 제안함.

— 그렇다면 노인복지관이 ‘서비스를 특성화하고 고급화하려는 전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서 하겠는가?에 대한 논의

○ 한가지 제안

— 노인복지관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던 노인복지의 수혜자를 확대하여 건강한 은퇴자 및 건강보험의 4,5,6 등급 노인을 주요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역사회 고령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 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보와 이에 대한 홍보로 인해 접근성 제고 노력 필요

— 기관의 최초 진입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친화나 교제의 목적성을 띤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확대로 접근성과 지속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필요

— 관련 사례로 미국의 ‘창의적 노화를 위한 국립센터’의 노년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일본의 ‘플레이케어’와 같은 노인전문 문화예술 기획사 육성과 지원 등의 방안

— 현재 한국노인복지관 협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노인분야 예술강사 파견 사업 진행되고 있음(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4. 각 발제문의 내용 관련

□ ‘베이비부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욕구 및 대응전략’에 대해

- 여가패턴에 따른 분석에서 1순위~3순위 여가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여가패턴 구분한 내용은 새로운 시도로 많은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함
 - 전체적으로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에 따른 세부 분석이 되면 좋을 듯
- 여가기관 및 시설 분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여가활성화 방안 제안은 매우 의미있음
 - 단, 공간을 실내와 실외 이외에 온라인공간도 포함하는 방안 제안
 -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이용실내나 이용희망율은 소득이나 비용지출과 연관 되므로, 이러한 경제적 변인과 관련하여 새롭게 분석하는 방안 제안
- 분석방법과 용어사용 관련 재고 요망
 - 전체 연령 평균과 비교, 비교집단(베이비부머, 예비노인, 노인/ 전기 B.B, 후기 B.B)에 대한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
 - 관련 용어 수정(‘여가시간에 대한 생각’ → ‘여가시간충분도’)이나 재고(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

□ ‘베이비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에 대해

-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 제시 요구
 - 연구자가 생각하는 노인복지관의 미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안 요구
- 노인복지관 이외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문화기반시설 등)의 협력이나 연계방안에 대한 제안
 - 현재 협력하는 사례나 해외 사례 등을 통한 발전적 모델 제안 요구

베이비 붐 세대의 여가문화활동 욕구 및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토론회 2

이호경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회장)

- 제9차 베이비 붐 세대 미래구상 포럼! 노인복지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실무현장 협회장으로 미래 노인 즉 예비노인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임. 더구나 오늘 ‘베이비 붐 세대의 여가 문화 활동 욕구 및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주제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감사를 드림.
- 평소 잘 아는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 교수님은 ‘베이비 붐 세대의 여가 문화 활동 참여욕구 및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며 여가문화참여 욕구에 기반한 대응전략, 대상의 세분화를 통한 대응전략,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여가활성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덧붙여 한 가지 코멘트를 하고자 함.
- 너무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TV시청에 대한 것을 예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재 어르신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임. 흔히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야기 하며 학력이나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들은 ‘분명히 다른 욕구가 나타날 것이다.’ ‘다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나타날지에 대한 문제임.

- 결론은 함께 생각해보기를 제안하며 저는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권 교수님의 베이비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 하고자 함. 제목에서 갖는 관심이 아주 큼 -그간 베이비 부머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본인 또한 당사자 인데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는 만큼 미래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음. 아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 회피한다고 보는 것이 맞음.
- 권 교수께서도 앞서 언급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욕구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발제문을 정리한 것 같음. 저 역시 확실히 부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발표자는 노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서 지난 2007년 복지부 연구과제로 우리협회와 함께 연구한 내용을 근거로 정리함.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미션 부분의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으로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노인복지전반에 대한 방향을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는 삶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도 있음.
- 두 번째는 제4장 베이비붐 세대와 현 노인세대의 노후여가생활 비교 및 예측부분에서 경제활동 참여와 여가활동, 평생교육과 사회참여에 관한 비교예측을 정리했는데 역시 경제활동참여는 현세대나 베이비 붐 세대나 두 집단 차이 없이 지속적인 증가를 원하고 있다는 점과 평생교육 부분의 욕구충족을 위한 질적 서비스 향상에 부분의 제언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세 번째는 제5장 부분의 베이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모색부분의 노인복지관의 목적변화에서 예방적 기능 뿐 아니라 문제해결 그리고 사후개입 서비스를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네 번째로 현재의 욕구보다는 성장배경의 문화 + 가치분석에 의한 결합이 필요함.
(즉 집권-명령-위계질서의 원리 중시사회에서 → 분권-자율-네트 원리 사회변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필요(참여 = 민주주의 -
연대 = 더불어 사는 공동체-생태 지속가능한 발전)

○ 수요자 중심 노후생활 지원체계 구축

○ 베이비 부머 복지 향상을 위한 균형 있는 민관 파트너십 중요함

신 노년문화운동 '시니어코리아' - 111만 운동

□ 끝으로 정책은 어떤 정책이던 입안 목적과 목표 즉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기본방향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노
인복지법상 기본이념에 대한 권리로써의 예비노인 개념의 제도 보완(권리적 성격
부여, 공적부양, 국가지방 단체 책임)과 노인복지서비스 시스템 재정립이 절대적으
로 필요함(생애주기별 서비스 체계 정립- 평생교육제도연계) 30년이 지난 노인복
지법의 미래지향적인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소개하고자함) 오바마 대통령
의 담대한 희망-가치문제에 대한 논란의 혼동은 대부분 정치인과 일반국민 모두 정치
와 정부를 동일시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문화는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결속을 결정짓는 힘을 지니고 있는데도 우리는 위험을
무릅쓴 채 그런 문화적 요소들을 외면하고 있다.(모르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그런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거나 빈약하게 만드는데 정부가 어

는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치의 공유와 공동의 책임의식, 사회적 연대의 힘을 교회나 사원, 또는 지역사회 직장, 가정에서만 발휘 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 전반에도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것임.

- 앞에서 베이비 부머 복지 향상을 위한 균형 있는 민관 파트너 십의 한 예로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실시하고 있는 신 노년문화운동 ‘시니어코리아’를 소개했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함.

베이비 부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욕구 및 대응전략

토론문 3

조동기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1. 전반적 사항

□ 분석 틀 및 자료 관련

- 여가의 개념에 대한 본 연구의 정의가 제시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여가는 잔여 시간, 자유활동, 기능수행, 심리상태 등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에 대비되는” 것으로 보거나 “여가 자체의 즐거움”도 여가로 보는 등 여러 차원들이 혼재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 여가활동 영역만으로 나누지 말고 여가활동을 의미상으로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 등으로 유형화시켜 분석에 활용하면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여가활동의 의미를 더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 노후의 삶의 질은 여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여가 관련 쟁점은 일/노동 및 여타 사회활동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여가-노동 및 여가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활동과 비교해야 그 의미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여가활성화 방안은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여가가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고령자들의 소외를 방지하는 사회 통합의 전략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차

원의 노동참여와 정치적 차원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생산적 노화’가 주목받아 왔으나 최근에는 사회관계와 여가활동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도 중요시되고 있다. 성공적인 사회 통합은 곧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어떤 측면들이 강조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하면 보다 유용한 여가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분석 자료의 수집과정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 통계표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 t-검증이나 F-검증에서 설정되는 일반적인 영가설을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의 여러 곳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의 결과 유의하지 않다고 나왔는데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 일부 통계표의 경우 유의성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데 생략되어 있다.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무의미하거나 적어도 논쟁적일 수 있다.
- 백분율이 제시된 통계표의 경우 합계란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는데, 누락된 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통계표에서는 빈도보다는 백분율을 위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 베이비부머 세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 변수가 주요 독립변수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 구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2. 세부 분석 내용

- 여가 시간 및 여가 비용 관련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할 때 성별, 베이비

부머 전후기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차이는 본 연구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평일 평균 여가 시간의 경우 성별 및 전후기별 차이는 없고, 교육수준별 차이도 없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이다. 휴일평균 여가 시간의 경우에도 성별, 전후기별, 소득수준별 차이는 없고 교육 수준별 차이만 있을 뿐이다.
- 여가 시간 만족도의 경우 성별, 전후기별 차이는 없다. 통계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위의 모든 부분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평균 여가 비용의 경우 성별, 전후기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별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 여가 활동 목적 및 여가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도 유의성 검증 결과를 고려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 여가활동 목적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며, 성별 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활동은 즐거움과 대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은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여가보다는 즐거움이나 건강추구 등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의성 검증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할 때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생각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외에 성별, 전후기별, 교육수분별 차이는 없다.

○ 여가의 중요도 분석에서 유의성 검증이 필요하다.

□ 여가 활동 내용을 영역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가 활동을 유형화 하는 틀인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적극적(active) 여가는 사회적 여가(가족, 친구와의 교제), 인지적 여가(취미, 학습,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기타 지적 활동), 신체적 여가(스포츠, 운동)를 포함하고, 소극적 (passive) 여가는 주로 가정에서 휴식을 위해 행하는 여가로, 매체이용, 독서 등 기타 여가 활동을 포하는 여가

○ 진지한 (serious) 여가는 애호활동, 취미활동, 자원활동의 체계적인 추구로, 전문화된 지식 및 경험의 습득과 표출에 초점에 둔 여가이고, 일상적 (casual) 여가는 상대적으로 단기적 활동으로 전문화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가(놀이, 휴식, 수동적 오락, 감각적 자극 등)

○ 이러한 틀을 활용하면 “베이비부머 응답자들은 휴식보다는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원하고 있다는 해석을 보다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여가활동 분석에서 또 주목해 볼 부분은 “여가활용의 사적화”(privatization) 경향이다.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되면서 여가활용도 공동체 활동 대신에 개인이나 가족 중심의 활동으로 변화되는 경향인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가?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희망 등을 볼 때 그 반대의 경향도 있는 등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

○ 여가패턴을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으로 나누는 것의 분석적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인다. 예컨대 같은 중복형이라도 휴식활동 중복형과 스포츠참여활동 중복형은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같은 범주로 넣어 분석하는 것은 내용상의 다양성을 형

식적으로 단순화해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어지는 여가패턴에 따른 만족도, 참여정도, 불만족 이유 등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여기기관 및 시설 관련 분석에서 현재 이용하는 시설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은 흥미로우며,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여기 기관 및 시설 유형을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 내부와 지역사회 외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책적 의지가 미칠 수 있는 범위라는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가활용의 중요 장애 요소가 시간과 비용이라는 앞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접근성과 더불어 시설 활용 비용도 한 축으로 제시되었으면 좋을 듯하다.
 - 현재 이용 및 희망 여가 공간에 대한 IPA 분석에서 A~F로 세분화 해 놓은 범주에 대한 사후적 해석이 필요할 듯하다. 예컨대 A로 분류된 종교시설과 근린공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앞의 희망 여가활동 유형과 연관시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림 3>에서 다른 영역과 달리 F영역 내에서만 세분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 베이비부머 세대와 예비 노인 세대의 IPA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도 예비노인 세대를 따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코호트 효과를 감안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일 지향적'이라면 향후 여가활용에서도 그러한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대응전략의 방향성을 대체로 타당해 보인다.

- 다만 앞의 분석에서 유의성 검증의 결과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대상 세분화를 통한 대응전략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에서 앞서의 분석에서 주요 독립변수로 간주되어온 성별이 빠진 이유와, 여가패턴 변수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약 28%로 크게 높지 않은데, 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나 접근 용이성 등의 변수가 추가하면 모형이 더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여가문화활동과 노인복지관의 기능

토론문 4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 베이비부머 세대와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세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봄.
 - 베이비부머 조사자들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84% 가까이 현재 배우자가 있었고, 교육 수준은 고졸(39.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졸 이하(31.8%)와 대졸 이상(28.4%)이 비슷한 비율을 보임.
 - 소득수준에서는 중류층(월가구 평균소득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응답자들이 48.8%로 가장 많음.

- 또한 이러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근거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여가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려는 시도 역시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봄.
 - 베이비부모들은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으로 3.68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휴일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하루 평균 6.56시간을 여가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희망 여가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었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
 - 반면, 휴일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보다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교육수준은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소득수준이 높게 되면 여가시간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됨.
- 남성(약 22만 2천원)이 여성(약 13만원)보다 월 평균 여가비용이 약 9만 2천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적인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여가비용에 대해서는 5점 척도(5: 매우부족함, 1: 매우 충분함)에서 평균 3.69로 부족하다고 인식됨.

		월 평균 여가비(천원)	월 평균 희망 여가비(천원)
전체		175.74	281.09
성별	남자	222.27	335.90
	여자	130.08	227.30
베이비부머	전기	177.17	272.13
	후기	174.39	289.48

□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 목적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는 이들의 미래 모습을 추가적으로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자료이다.

-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마음의 안정 및 휴식,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예비노인 세대들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26.9%로 가장 높았음.
- 남성 :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의 목적을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및 휴식에 두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여가보다는 즐거움이나 건강추구 등 여가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로 분석

- 여가생활의 불만족 이유 : 경제적 부담(53.8%), 시간부족(41.6%)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
 - 소득수준이 '상'인 경우 여유로운 삶을 위해 여가시간을 늘리겠다는 비율(84.4%)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이는 은퇴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가생활을 즐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퇴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보다는 여가시간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 이상은 아님.
- 현 베이비부머 세대의 69.4%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하지만, 현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기존의 은퇴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이라는 새로운 가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즉, 은퇴 후, 40-50년을 살아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활용을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은퇴 이후의 불안한 경제상황을 위한 자구적 노력 때문에 여가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런 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의하는 여가시간이란 무엇인지 재조명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젊은이나 장년, 그리고 은퇴자들은 모두가 하나 없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일자리의 문제가 다른 모든 걱정거리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게 되면 일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즉, 우리나라의 GDP가 3-4만불

로 늘어나면 좋은 일자리가 지금보다 1.5-2배로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물론 한국기업은 IFM 구제금융 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에도 무리없는 성장을 했다. 금융회사들을 제외한 한국 2,000대 기업들의 매출액은 2000년 815조 원에서 2010년 1,711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런 지난 십 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분석하기에는 향후 좋은 일자리는 지금보다 눈에 띄게 더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 보인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는 ①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넷크래킹의 늪에 빠지게 되고, ② 넷크래킹 효과와 반복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고, ③ 지난 십 년 선전했던 제조업 기업들 역량이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고, ④ 이 모든 문제들로 제조업의 사업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는 자동화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의 추세가 더욱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글로벌 생산체제로 인한 탈자국화 혹은 기업의 다국적기업화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이 지난 10년동안 GDP가 19.5% 커졌지만, 일자리 증가 갯수는 '0'였고, 대신 1/6이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청년고용률은 2차대전 후 최저의 수준인 55.3%까지 하락을 했다. 대신 비슷한 기간동안 미국의 추가적 성장만큼 늘지 않았던 일자리 280만 개의 일자리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참고-<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E&year=2011&no=618019&selfFlag=&relatedcode=&wonNo=&sID=303>)

□ 우리나라는 어떨까?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경제를 심각한 위기의 수준으로 몰고갈 지경에 이르렀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573만1000명 가운데 577만300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또한 정규직 76.0%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41.8%만 가입했으며 건강보험은 정규직은 76.6%가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41.8%만 가입했을 정도로 현재의 소득위기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후 위기도

함께 커져가고 있다. 일자리 감소의 문제는 이미 청년들만의 문제를 벗어나,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장년들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은퇴 후 재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장년의 경우, 40대 후반부터 불어 닥치는 조기 퇴직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중년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생활밀착형서비스 산업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관계로 점점 더 빈곤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통계청과 중소기업청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에 민감한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 중개업 등의 몰락이 두드러진 관계로 2011년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1만 4,000명으로 1999년 1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1년에 80-100만 명이 창업을 하는 상황에서 생존해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얼마나 이들의 고통과 몰락의 반복이 빠르고 큰 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2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8%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완전히 포화상태에 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18년 동안 1640만명의 1,2차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정말이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니, 이런 비극의 전초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2006년 230만명 이던 40~60대 임시직 근로자(알바)는 2008년 253만1000명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271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를 반영이라도 한 듯, 2011년 9월 20일 신문에 경제위기에 무너지는 베이비부머 가장들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주가 폭락,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보상이 늦어지자 늘어가는 빚을 건디지 못하는 것, 노후 불안과 퇴출 공포 등으로 인해 베이비부머의 자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마음을 착잡하게 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하지만, 이들의 자살률은 20년 전인 1989년보다 300%가 증가했다고 한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자살하지 않는 베이비부머들도 그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미 베이비부머의 26.1%는 은퇴 후에 확보 가능한 월 수입이 평균 100만원 미만

이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55-79세 인구층 들의 구직경험은 15.7%에 불과하다. 그나마 2007년도보다는 4.3% 포인트 증가한 수준인데, 이 증가 수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는 은퇴자들의 일자리 찾기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일자리 선택의 기준에서 '임금의 수준'이 2007년 45.2%였던 것이 2011년 27.2%로 낮아지고 일자리를 구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생활비 보탬이라는 응답이 49.9%로 급등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소폭이라도 구직경험이 늘었다고 해도 대부분이 다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지만 생존을 위해 그마저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얻은 일자리들은 대부분 전에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자리들이거나 여성들이 일을 했던 영역이거나 저소득층들이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붙들고 있었던 일자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6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66%에 달한다. 다른 연령층 평균인 32%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 이 같은 일자리도 얻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퇴자들이 구직 경쟁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한국은 자영업 포화 상태다.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의 두 배에 달하는 32%다.

□ 아무리 청년과 장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일자리를 쪼개주기를 해도 근본적으로 넛크래커 현상과 주주이익의 극대화 현상의 가속화와, 임금상승의 압박과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의 축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1,640만 명의 은퇴자들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처럼 저임금 시장을 떠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심한 경우는 취업포기자가 되어 수십만원에 불과한 연금과 국가보조에 연명하

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 즉,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로 쫓겨 나서 외로움, 빈곤, 질병에 혹사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미래는 향후 10년 이내에 기업들의 넷크래커 탈출의 성공 가능성, 주주이익의 극대화 시스템의 개선,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건강한 성장과 확대의 환경 조성, 현재 교육 시스템과 교과내용들이 변화되는 미래형 산업과 기업이 원하는 미래형 인재조건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빠른 보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즉,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청년, 장년, 은퇴 후 재취업자, 외국인 노동자, 여성의 5파전이 벌어지면 사회적 혼란과 불만은 극대화 될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시위나 폭동 혹은 선거를 통한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또 다른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염두 해 둔다면, 베이비부머들의 여가생활, 정치활동, 평생교육 형태 등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1. 여가활동 유형

- 집안에서 대부분, 주로 혼자서 즐기는 여가활동 유형.
- 베이비부모 응답자들은 휴식보다는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여가시설의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여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여가활동 패턴에서 동일형, 중복형, 혼합형 모든 패턴에서 휴식활동이 가장 많았음. 휴식활동 중심으로 여가패턴 특성은 유지.

- 베이비부머들 여가시설로는 공공시설(38.8%)보다는 민간시설(48.4%)을 더 선호함.
 -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큰 차이점은 주체 운영과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베이비부머의 여가 목적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점에서 소비성의 여가생활이 아닌 생산적인 여가생활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베이비부머의 여가문화활동 대응 전략

- 2006 고령자 패널조사와 2008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근거로 노동지속의사를 비교해 보면, 세대에 관계없이 노동지속 의사가 강함.
 - 베이비부머의 49.5%, 예비노년층의 56.9%가 지속적으로 노동을 할 의향을 지니고 있음(이소정 외, 2010)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90.1%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 중에서는 32.2%가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가족부, 2009)
-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볼 때,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년기에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현 세대 노인보다 높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함.
- 여가활동 장소는 베이비부머인 중장년층에서부터 60대 노인까지는 실내공간의 비중은 줄고 실외공간은 늘어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현 노인세대에 비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여가활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문화관광체육부, 2010)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었을 경우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등의 다른 여가문화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등 여가활동 장소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현 노인세대보다는 노인복지관의 여가서비스 이용

시작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 평생교육에 관한 비교와 예측

- 베이비부머의 경우 현 세대 노인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노년기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이 확대 설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여 평생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움.
- 노인복지관이 시설 접근도뿐 아니라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베이비부머세대 노인으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이 내재함.

○ 사회참여에 관한 비교

-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 중에서 정치사회단체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2% 미만이며, 노년기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여 베이비부머의 적극적인 사회단체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적절치 않음.
- 베이비부머 세대의 힘은 현재 경제력으로 대두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경제력보다는 정치력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당장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생존과 연결된 국가지원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노인대상 복지 현실을 감안하면 긴축재정의 첫 번째는 복지예산의 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베이비부머의 정치적 힘이 강력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함.

3. 베이비부머의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기능 변화

- 베이비부머와 노인 세대의 고용지원, 건강생활지원(특히 예방적 기능)을 상향 조정.
 - － 현재 중심적 기능인 취미여가지원이나 사회참여지원 기능을 유지하고,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생교육지원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고령친화사업의 발전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요인
 - － 재정자립도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차이 발생

-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할 경우에도 현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소득, 주거, 건강, 여가 등의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분명 세대내 양극화 현상이 존재할 것임. 이를 위한 서비스 개발을 실시하여야 함.

- 노인복지관이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서비스 영역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 － 즉, 고용, 여가, 건강, 평생교육, 가족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 중에서 특정영역에 집중하는 ‘서비스 특성화, 고급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대가 변화하면서 생활의 패턴과 양식이 변화하는데, 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부르기도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는 교육의 속도를 어떻게 재정의 해주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 노인복지관의 주요 목적은 1차적 예방이며, 현 세대 노인과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의 건강생활, 취미여가, 고용,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이 핵심적 기능이 될 것이라는 점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노인복지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하여 서비스의 특성화와 고급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능 및 역할 변화를 위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연령서열형 사회의 특성, 베이비부머 세대 내부의 양극화 현상, 다른 노인복지시설과의 역할 분담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 확실성의 시대에는 예방이 중요한 항목이 되었지만,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예측을 통한 시나리오적 접근이 필요함.

|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는 현재 약 712만 명으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해온 우리 사회의 압축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적 대처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가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인구고령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2일에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을 발족하였고, 2011년 1월부터 매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포럼마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 여가, 노동, 은퇴, 가족, 소득,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정부, 학계, 관련 업체 및 언론계 전문가를 모시고,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현황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베이비붐 세대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포럼 위원 명단 |

성명	소속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손명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송양민	가천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장
오영훈	라이프커리어전략연구소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원권	우송대학교 부총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미래학자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홍백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